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음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의 고난과 겸손에 곁잡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한 시동 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따는 자가 가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0-41, 46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72호 2012년 2월 18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침묵과 회개의 시간... 부활의 영광 대망하자!

2012년 '사순절'을 맞는 교회공동체에 대한 제안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며 예로부터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다. 2012년 올해는 2월 22일 (재의 수요일)에 시작해 4월 8일 부활주일 전까지의 기간이 사순절이 된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선택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훈련하는 기간이다. 중세교회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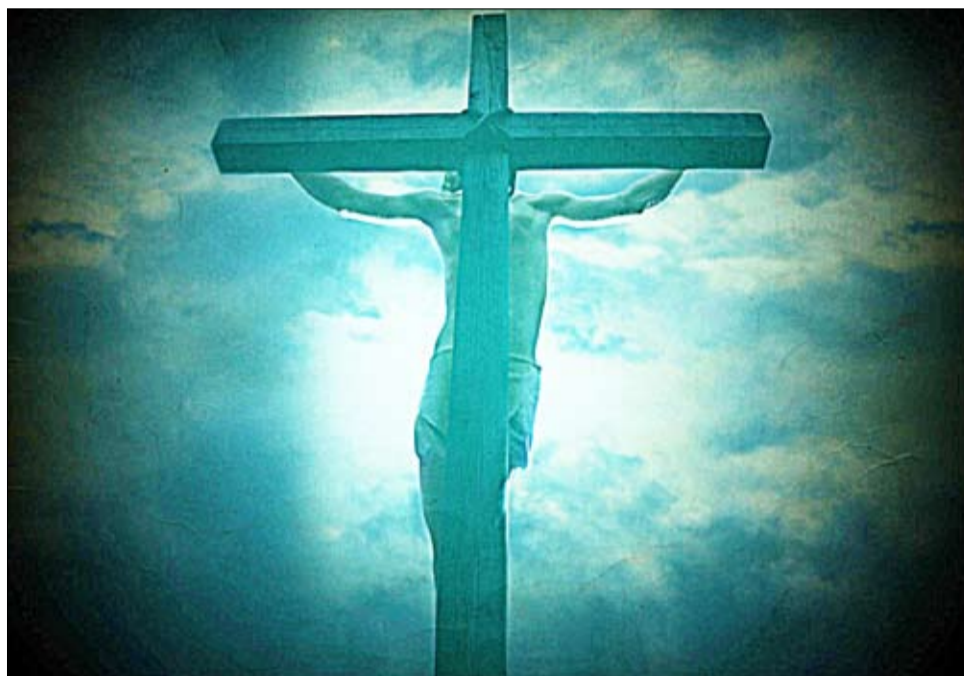
'사순절'을 금식 기간으로 정해 신앙의 실천을 강조했다. 그동안 교회공동체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처럼 화려한 기념행사에는 모든 노력을 바쳐왔지만, '사순절' 처럼 의미를 가지고 안으로 숨어드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 데는 부족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겸손함보다는 화려함을 선호하고, 침묵과 명상보다는 찬양과 영광에 열정을 쏟아왔던 것이다.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이면 부활절을 위해 전진하는 느낌을 가진다. 땀을 흘리며 달려가는 사람처럼, 목적을 위해 사순절이 존재하는 교회프로그램들은 사순절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나 생각이 든다. 좀 더 천천히, 깊이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동반자의 훈련이 필요하다.

겟세마네동산에서 예수가 혼자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할 제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다. 피곤하여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동행하지 않으려는 내적인 시험이 그들을 지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다.

사순절에는 명백한 주님의 권고가 있다. 첫째는 일어나는 일이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졸음이 오는지 주님은 세 번씩이나 "깨어나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라며 책망하셨다.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된 것이다. 시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에서 시작된다. 신앙생활에는 저마다 십자가가 있다. 이 십자가는 기도할 때 질 수 없기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둘째는 함께 가는 일이다. 일어났으면 십자가를 다시 져야 한다. 함께 가는 길은 그냥 따라나서는 길이 아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새 길을 여는 다짐이 요구된다. 함께 가는 길에는 저마다 책임이 따른다. "함께 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사순절 회개의 시간도 철저히 가져야 한다

자"는 말씀은 공동체의 언어로 위로와 용기도 들어있다. 함께 가면 슬픔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사랑은 배가 된다. 특히 사순절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십자가를 함께 지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에 있다. 사순절 즉 40일 동안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인생에 적용해야만 한다.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 성찰과 회개가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동반자로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의미 회복은 공동체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소수세력이라는 이름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죽어가고 있다!

뉴스위크, 이슬람권에서 박해 고문 받는 크리스천들 보도

이슬람극단주의는 오늘날 기독교를 포함, 이슬람이 아닌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한 최악의 박해자이며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 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은 지구촌에 통용되는 경고이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 이후 무슬림들이야말로 서구 세력에 의한 희생양이자 피해자라고 이슬람 세계는 말하고 있다.

무슬림들이 자라나면서 극단주의로 노선을 선회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는 서구 세력의 피해자"이기에 지구촌에 분산된 무슬림들이 대동단결해 자신들의 고향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서구 세력을 몰아내는 것을 이슬람 극단주의의 최대 행동 강령으로 삼는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촌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다른 아닌 이슬람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이다. 이들은 단지 소수 세력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부분 이슬람 국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 집단이나 세력에 의해서 살인당하고, 교회당이 전소당하고 그야말로 인권 유린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이슬람 정권 역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또 다른 대살상(genocide)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를 방관, 묵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위크(Newsweek)는 최근 커버스토리로 이슬람권에서 신앙 때문에 살인, 납치 그리고 인권 유린을 당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해 지구촌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The Global War on Christians in the Muslim World: From one end of the muslim world to the other, Christians are being murdered for their faith).

최근 소수 세력인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들은 북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이르는 무슬림 다수 국가들에서 연일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국가 등에서는 정부 기관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서 교회들을 불 지르고, 교인들을 체포해 구금시키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반항 세력들이나 극단주의자들이 크리스천들을 살해하거나 납치하는 만행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구촌 한편에서 이처럼 살인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너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슬람권에서 발생하는 무슬림에 의한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를 보도하면 또 다른 폭력이 발생되어 "폭력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이다.

(2면으로 계속)



3면

복음에서 이탈할 때 반드시 찾아온다!



7면

시너지 효과로 선교 효율성 높인다



13면

격동하는 시리아 전호진 박사



15면

반 기독교적인 미국 법안 안내 (3) 새라킴 사모(Christian Coalition)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19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주강사 옥한흠 목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오정현 목사 (서울 사랑의교회 담임)
 (옥한흠 목사 강의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강사 김명호 목사, 김건우 목사, 강명욱 전도사
 일시 2012년 5월 21일(월) - 26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상 현 이민 교회 담임목사 (단 55세 이하에 한함)
 (담임목사 참가시 부교역자도 참석 가능)

정원 160명
 등록서류 신청서, 주보, 사진 1매
 등록비 390USD (숙식 및 교재 포함)

등록마감 2012년 4월 15일
 (인원 제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제 12기 제자훈련 체험학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제자훈련의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제자훈련을 위한 이론과 방법을 몸으로 익히도록 돕는 Workshop입니다.

강사 김명호 목사, 김건우 목사, 김홍장 전도사
 일시 2012년 5월 28일(월) - 5월 31일(목)
 대상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수료자
 등록비 250USD
 등록 마감 2012년 4월 15일

제자훈련 세미나를 수료시에는 버밍햄 신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론

보성 삼남매 사건의 교훈



원종훈 목사 (사카고 그리스도교회)

2월 초, 고국 전라남도 보성군 어느 교회에서 10살, 8살, 5살 삼남매가 하루 이틀 사이로 죽었다. 그런데 상황을 들으니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가 겹친다. 아이들이 감기증상으로 몸이 아팠는데도, 부모는 의료의 손길을 멀리했고 오히려 아이들을 낫게 한다는 이유로 금식을 시켰다. 더구나 금식중인 아이들에게 심한 매질을 했고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아이들이 죽자, 살려달라며 사체를 수일간 방치해두었다. 바른 신앙은 둘째 치고 도대체 온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인지 묻고 싶지만,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이란 상상조차 못할 만큼 큰 것이기에 가슴치고 후회하고 있을 그들에게 먼저 위로로 전하며 이 일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인 한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사교해야 한다. 물론 그 부모의 신앙이 전형적인 기독교신앙에 위배되는 사이비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다르다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준 충격에 대해 머리 숙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발 방지차원의 몇 가지 내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해석과 적용 사이의 균형을 놓치다보니 성경 저자의 본래 뜻은 쉽게 간과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지극히 주관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일이 허다해졌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어느 한 구절을 전후 사정과 문맥에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아이를 체적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잠23:13-14의 말씀은 아이 훈육을 위해서 때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이지, 죽도록 때를 때리라는 뜻도 아니고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지 않은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성경해석학을 들먹거리며 한 치의 오차 없이 그 뜻을 풀어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교과서적인 성경 해석 정도는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말씀 가르치는 자들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짐을 느낀다. 둘째, 신앙과 상식, 자연과 초자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을 간과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우리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지만, 또한 상식을 내포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사건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다. 지극히 자연적이며 상식적인 일상으로도 가득하다. 혹자는 이번 사건을 부모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라 하는데, 그보다는 그들의 몰상식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무리한 금식강요, 치료의 기회박탈, 사체유기 등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몰상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셋째, 잘못된 신앙 및 이단에 대한 심각한 경계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장본인들은 목사로서 전문교육을 받거나 안수 받은 일이 없는데도 목사라 불리웠다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목사도 보도했다가 교인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사이비 혹은 이단은 일상에서도 자극적이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며, 성경의 특별한 사건을 일반화 시켜 무리하게 현실에 적용하는 일들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상식과 배타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이런 유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 사이비나 이단은 자기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으니, 이왕에 이들과 구별되는 방편으로 교회마다 자기가 속한 교단과 목회자의 신학배경 정도는 게시하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는 사회에 한 가지 이해를 부탁한다. 어느 한 기업이 잘못했다고 모든 기업을 탓할 수 없고, 오늘이라는 시점의 한 번 실수로 누군가의 생애 전체를 부인할 수 없듯, 어느 그리스도인의 몰상식이나 실수로 인하여 기독교 교회전체, 심지어 교회역사상까지 폄하하지는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한다. 사회는 기독교회의 자정기능을 신뢰해야 할 것이며, 교회는 교회대로 신앙의 사회적 순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번도 본 일 없는 세 아이의 모습이 자주 어른거리는 것은, 이 시대와 사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자(死者)가 남기는 무언의 교훈이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구세력의 피해자” 극단행동

뉴스위크, 이슬람권에서 박해 고문 받는 크리스천들 보도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정작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크리스천들의 박해 실상을 지구촌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이슬람 세력의 로비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이슬람권에서 일종의 UN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본거지가 있는 이슬람협력기구(the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단체(the 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는 풍부한 오일 머니를 통해 미디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들 단체들은 서구 진영의 지도층이나 저널리스트들로 하여금 일단의 폭력 행위들이 바로 “이슬람포비아”에 의한 크리스천들이나 서구인들의 두려움에 따르는 폭력이 먼저 이슬람권에 이뤄져 이에 따른 무슬림들의 자연스런 대응이었다고 믿게 했고 이는 성공을 이뤘다.

그러나 이슬람들이 말하는 “이슬람포비아”는 서구권에서 점점 더 희석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슬람권에서 피를 흘리는 크리스천들이 많



수단



이집트

는 수단 북부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잔학한 고문들을 그리고 남부 지역의 정령신앙을 믿는 애니미스트들을 살해했다. 바로 소수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수단 역시 다수 무슬림 세력과 소수 크리스천들과의 전쟁은 거의 시민전쟁 이상이다. 바로 2003년 다르푸(Darfur)에서의 대학살이 대표적인 박해 현상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수단의 무슬림 대통령인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Bashir)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해, 3건의 대학살을 진두지휘한 범인으로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지금도 폭탄 테러나 살해, 납치 등 도저히 상상도 할 수없는 잔혹한 박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UN의 통계에 따르면 53,000에서 75,000명 사이의 무고한 수단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고 이들이 살던 집과 교회당은 약탈과 방화로 전소 당했다.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 이후 이

미디어들 “폭력의 순환” 우려 보도 꺼려...막강한 이슬람세력 로비 한 몫 서구권 “관용” “종교의 자유”로 무슬림 행위 표현 허락 이슬람권 “다수세력의 횡포”로 크리스천 박해수위 높아져

아지고 있다. 서구권에서는 “관용”과 “종교의 자유”라는 양 날개로, 무슬림들의 종교적 행위를 표현을 허락하고 있지만 이슬람권에서는 “다수 세력의 횡포”로 소수 세력인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있고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권에서의 살해당하고 박해당하는 크리스천들의 보도가 사전에 검열되고 폐기되는 “음모”가 더 이상 지구촌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만큼 종교적인 소수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슬람권에서 박해당하는 크리스천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
신성모독죄, 잔혹한 살해, 폭탄 테러 그리고 교회당 전소 등 한마디로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는 무법지대인 나이지리아는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그래도 크리스천 인구가 40%나 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60%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들은 거의

시민전쟁에 가까운 전쟁을 크리스천들과 벌이고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크리스천들을 닦는 대로 살해하거나 폭력을 일삼는 단체는 바로 보코 하람(Boko Haram, 서구 교육은 모두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는 이슬람극단집단)이다. 이들의 목표는 나이지리아에 이슬람식 통치 체제(Sharia)를 설립하는 것으로, 결국 나이지리아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을 살해하는 것을 지향한다.

2012년 1월 한 달에만 보코 하람은 54명의 크리스천들 살해에 연관이 있다. 2011년에는 최소한 511명을 살해했고, 북부 주에 산재하고 있는 350개의 교회들을 불 질렀다. 이들은 총과 화염병 심지어는 날이 넓고 무거운 칼인 마체테를 사용해 크리스천들을 살해하면서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친다.

성탄절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크리스천들을 공격하며 주로 크리스천 사역자나 정치가들,

학생들, 경찰, 그리고 군인들을 살해한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살상을 비판하는 무슬림 성직자들도 제거 대상으로 삼는다.

이처럼 폭력이 극단으로 치닫자 AP통신은 처음으로 보코 하람의 위협성을 최근에 보도했다.

수단 이슬람포비아가 아닌 “크리스토포비아”(Christophobia)가 수단에서 아주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수니파 일색인 독재 정권

집트는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주 정부 대령 기관들에 의해서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집트 인구 중 11%를 차지하고 있는 콥트 크리스천들이 카이로에서 무슬림들에 의해서 받는 각종 박해들에 대한 평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집트 경찰당국은 시위대에 트럭들로 돌진하고 방화하여 최소한 24명을 살해했고, 300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p>	
<p>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p>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2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봄학기: 2012년 2월 13일~5월 25일)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 | |
|---|---|
| <p>ESL
Certificate Program</p> <p>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p> <p>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p> <p>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p> | <p>MASTER of Divinity
M.Div.</p> <p>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p> |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Full-Time 사역자 청빙

올바니 사랑의교회 (Albany, New York) 에서 English Ministry와 Youth Group 사역을 위해 헌신할 Full-Time 사역자를 찾습니다.

[자격요건]

1. 1.5세이거나 2세로서 영어권 사역 (설교 및 양육)에 소명과 열정이 있으신 분
2.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으며 학생들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신 분
3. 인가된 신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관심있으신 분들은 4월 첫째 주까지 아래 이메일주소로 이력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메일 주소: eunjoo.han@gmail.com

올바니 사랑의교회

담임 박성일 목사
Albany Sarang Fellowship Church
410 23rd. St. Watervliet, NY 12189
www.albanysarang.net



복음에서 이탈할 때 반드시 찾아온다!

크리스천포스트, 미국교회 선교단체 중진 목회자들의 탈진 이유와 해결방안 보도

목회탈진은 목회자가 마땅히 전념해야 할 '말씀과 기도'의 연습분량이 부족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은 목회에 대한 가중되는 부담이나 사역량의 증가에서만 그 원인을 찾고 있다고 선교단체(World Harvest Mission)의 콜린 한센(Collin Hansen) 목사는 폭로한다.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지는 목회자들에게 빈번하게 다가오는 탈진(Burnout)이 목회자 자신이 복음에서 떠나 자신이 만든 우상을 쫓아나갈 때 반드시 찾아오는 불청객이라는, 진술하지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게는 부끄러운 보도를 해주고 있다(Pastor Burnout Is Result of Idol-Chasing, Lack of Grip on Gospel).



목회자들에게 어김없이 다가오는 탈진은 보통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에서 온다. 즉 건강관리와 경제력 확보, 과도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간소비와 영적 분별력 약화 등이다.

이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영적 분별력 즉 복음에서 떠나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이 복음이 될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이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소리 없이 다가와 목회자의 영적 건강

위해 말미 없는 십자가 대신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목회자의 영적 건강은 빈틈에 따른 풀같이 건조하기 십상이다. 결국 유명세, 사람들의 칭찬, 성공 그리고 다른 목회자에 비교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로부터 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나임으로부터 떠나 자신의 능력과 생각을 믿는지 진단해보기 바란다.

1. 교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진다.
2. 사역보다는 정치나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종종 생각하고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불만이나 감정을 충족하고 싶어진다.

‘말씀과 기도’의 연습 분량 부족이 원인 목회 부담, 사역량 증가가 이유 아냐

을 병들게 한다.

밥 오스본(Bob Osborne, The Gospel Coalition) 목사는 자신이 탈진 상태에 들게 되는 것은 바로 사역의 양이 아닌, 충분한 쉼과 회개의 리듬을 상실하고 자신이 만든 우상들을 향해 달려갈 때 일어난다고 고백한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점점 더 나 중심이 될 때, 쉽게 지치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내가 박수갈채를 받고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집에 도착하면 알 수 없는 우울증과 가족들과도 대화를 나누기가 싫어진다.”

오스본 목사의 고백은 단순하다. 즉 목회자가 복음과 멀어지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역에 임하면, 탈진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다른 목회자들도 공통된 의견을 내놓는다.

목회자는 바로 항상 자기만족과 소외라는 미묘하게 혼합된 감정을 느끼는 카타르시스를 매일 마시고 산다. 따라서 고립되고 소외당한 자아를 충족시키기

그렇다면 탈진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당장 회개의 무릎을 꿇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으로 선회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사실이다. 먼저 자신에게 쏟아지거나 부여지는 모든 비판들이나 좋지 않은 견해들을 수용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무력한 인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만약 비판들을 수용하지도 않고 복음에 맡기지 않으면 목회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립됐다는 상한 감정과 망상, 분노만이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의 은혜 안에 목회자들이 다시 들어서면, 유연하게 사역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사역이나 사람들과도 사역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고, 겸손한 목회자라는 인상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서 가슴에는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게 되고...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탈진 10가지 진단 리스트를 소개한다. 진단 리스트를 통해 목회자 자신이 얼마나 복음 즉 하

3.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웠던 시간들을 기억할 수 없어진다.

4. 집과는 전혀 관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들과 말도 하기 싫어지고 인터넷에 전념하게 되고 잠만 자고 싶다.

5. 사역이 분주하다보니 자신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년중 가장 바쁜 시간이지만, 조금 있으면 한가해진다”고 계속 말하게 된다.

6. 다른 사람들이 한 말들에 대한 집착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좌절을 느끼고 희망을 버리게 된다.

7.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힘들기에 점점 더 쉬운 결정을 내린다.

8.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본다.

9.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좌절과 불안에 시달린다. 심지어는 자신이 공격을 받는다고까지 생각하지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10. 점점 더 가족이나 친구들과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대부분이다.

소수세력이라는 이름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죽어가고 있다!

(2면에서 계속)

따라서 작년 말에는 무려 2십만 이상의 콤팩트 크리스천들이 더욱 가중되는 공격들에 대한 안전장치로, 고향을 떠나는 또 다른 형태의 출애굽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위 “아랍의 봄” 이후, 즉 무바라크 정권이 몰락하고 현 이집트 정권에는 점점 더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이 진입해 콤팩트 크리스천들이 두려움은 당장이라도 돌발할 수 있는 가시권으로 좁혀지고 있다.

다. 그러자 파키스탄에서 저명한 무슬림 성직자는 경호원을 “영웅”으로 추앙했고,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슬림 세력의 입김으로 그 경호원은 아예 증발해버렸다.

허드슨 연구소에서 종교적 자유를 말고 있는 니나 슈아(Nina Shea) 소장은 대부분의 무슬림 다수 국가들에서 소수 세력인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국가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극단 이슬람주의(Salafist) 운동이 발흥하는 국가들에서는 더욱 더 심각한 형편이다. 한마디로, 소수계인 크리스천들은 해당 국가에서 이등 시민으로 전락하게 되고 일등 시민인 무슬림들은 크리스천들에게 살인과 같은 폭력을 행사해도 면책 특권이 주어지고 국가는 이를 묵과해 더욱 더 크리스천들에게는 피 냄새와 박해만이 가중되게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라크

이라크

무슬림들의 땅에서 소수 크리스천들을 말살해야 한다는 사명(?)은 비단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라크에서는 그 강도가 심하다.

2003년 이후 이라크에서는 900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주로 앗시리아인들이) 바그다드에서만 잇따른 테러들로 살해당했고 70개 교회당이 완전히 전소 당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인접해 있는 국가들로 몰려 이주하는 대 이동이 벌어져 2003년 이전에는 백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불과 50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결국 앗시리아 언론단체(the Assyrian International News Agency)는 “이라크에서 이제 막 시작된 앗시리아인들에 대한 대학살”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

2백80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파키스탄에서 이들은 전체 인구수로는 불과 1.6%에 속한다. 따라서 소수계이다 보니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 테러들로부터 아주 엄격한 신성모독죄의 희생양이 돼야만 하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공포로 살고 있다. 실제로,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으로 전향한 한 여성이 예언자 모하메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여론으로 편잡 주지사로서 하여금 사형이 아닌 종교의 자유로 문제의 여성을 자유롭게 하려고하자 경호원이 주지사를 살해했

결국 바로 여기에 심각한 무슬림들의 모순이 숨겨져 있다.

이슬람권에서는 자신들이 서구 세력에 의해서 역사와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희생양이자 피해자라고 항변해왔다. 따라서 서방 정권들은 다수 세력들에 의한 독선과 횡포로부터 무슬림들을 보호하고자 “관용”의 이름으로, 무슬림들을 보호하고 종교적 자유까지도 허락했다. 서구권에서 무슬림들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공포 없이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양심의 자유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이슬람포비아’의 희생양이라고, 만화, 영화 그리고 서적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무고한 피해자라고,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계속해서 펼쳐내고 있다. 바로 지구촌 한편에서, 아니 자신들의 고향에서 크리스천들이 연일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자신들만이 희생양이라는 허구를 서구권에 확대시키고 있다.

결론으로, 그렇다면 소수계인 크리스천들의 생명과 권리를 어떻게 무슬림 국가들에서 보호할 것인가?

먼저 서구 국가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박해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바로 무역과 투자 유치 조절 그리고 외교적 압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양심과 종교적 자유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촌은 무슬림들이 이슬람포비아의 희생양이 아니라, 바로 크리스천들이 “크리스토포비아”로 인한 박해의 장본인이라는 실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러면서 “순교자의 피를 통해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역설적인 진리가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무슬림 국가들에서 활짝 개화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순교하는 아들, 딸들의 헌신을 통해, 다시 무슬림들을 살리는 큰 경륜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영춘 목사 원로목사 추대 예배



장영춘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를 설립하시고 38년 동안 섬겨 오신 장영춘 목사님의 원로목사 추대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이 복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주후 2012년 2월 26일(주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퀸즈장로교회 본당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전화(718)886-4040 FAX(718)358-7789



퀸즈장로교회 담임 박규성 목사 및 교우 일동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정순왕후의 눈물

(定順王后)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연을 머무는 곳에 잔재로 남는다. 고로 어디든 사연이 없는 곳은 없다. 다만 사연을 남긴 자의 신분 여하에 따라 그 자리가 역사적으로 기억되던지 아니면 기억되지 않을 뿐이다.

로마의 콜로세움을 지나다가 어느 여인이 자꾸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오른 편에는 대여섯 살 남짓한 꼬마가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가면서 움찔 움찔 엄마의 얼굴을 훑쳐보며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 광경은 마음을 찡

하게 했다. 길을 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이상스레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다. 콜로세움 맞은편에 거대한 네로 황제의 궁터인 도무스 아우레아가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네로를 그처럼 사랑했던 그리스계 노예 클라우디아 악테. 자신의 낮은 신분으로 황제를 대 놓고 사랑할 수 없어 마음 저 깊은 곳으로 삭여내려야 했던 여인, 결국 네로가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는 현장에서 그의 몸을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던 불행한 여인의 슬픔이 어우러진 자리이기에 그런지 모르겠다. 이 시점에서 단종의 비 송씨, 후에 복권되어 정순왕후가 된 비극의 여인이 기억되었다. 그녀는 사육신들의 단종 복위운동이 누설됨으로 단종에게 사약을 내려 죽게 했다. 이제 17살 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고, 살려달라고 그토록 애원하

는 조카를 말이다. 잘못된 권력 의지 때문에 단종의 비 송씨는 평생 피눈물을 뿌리며 살아가야 했다. 더더구나 사육신들의 단종 복위 운동이 탄로남으로 그의 신분은 관비로 전락했다. 그때 신속주는 단종의 비 송씨를 자신의 노비로 달라고 주청했다니 인간이 얼마나 약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결국 세조는 그건 너무한다 싶었던지 “그는 노비지만 노비로서의 사역을 할 수 없게 하라”고 함으로 새 파랑계 젊은 그녀는 수절의 뜻을 펼 수 있었다. 그 후 송씨는 18살의 세파란 나이로 동대문 밖 정업 원으로 가서 일생을 소복을 벗지 않고 살았다. 그녀는 아침 일찍 남편의 유배지 강원도 영월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통곡을 쏟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다. 조정에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그에게 필요한 양식과 옷감을 보냈지만 그녀는 손도 대지

않았다. 시종들던 시녀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동냥한 음식으로 연명했다. 이런 사정을 아는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을 오가며 몰래 곡식을 문간에 놓아주기도 했고 또는 시장을 가는 척 하고 살며시 울안에 양식을 던져 넣어주기도 했다. 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세조의 지엄한 명령이 살아있음에도 말이다. 그녀는 명이 길이 82세까지 살았다. 그래서 세조-예종-성종 때까지 살면서 권력욕에 미친 세조들 중에 타월한 임금이 나올 수 없을 부릅뜨고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친정마저 멸족을 당해 후환을 염려할 것이 없었기에 조정에서도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다. 고로 그녀는 살면서 세조의 장자 의경 세자가 스무 살에 요절하여 세조가 땅을 치며 슬퍼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고,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의 비 정순왕후(한명회의 셋째 딸)가 아들 안성대군을 낳고 이해hein

17세에 산후병으로 모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부릅뜬 눈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송씨가 매일 새벽 뒷산 동망봉에 올라가 원통하게 죽은 남편 단종을 향해 드리는 통곡이 한양을 흘러들여 세조가 뿌린 씨앗들을 거두도록 한 것인지 모른다. 한 여인의 눈에 피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것, 그것이 한으로 차곡차곡 쌓일 때 이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지 세조의 후예들 중에 타월한 임금이 나올 수 없었는지 모른다. 그 후 송씨는 숙종 때에 신분이 복원되어 정순왕후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길지 않은 삶에서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우리는 과연 이런 참된 관계를 위해 힘쓰고 있는지 살펴야겠다. 콜로세움 길가에서 흐리는 여인의 눈물이 일시적 감상의 뭉뚱이기를 영원해 본다.

푸/ 른/ 초/ 장

박태열 목사
(유니온연합감리교회)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과연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이렇게 무리가 모인 비슷한 경우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명을 먹였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몇 마리 물고기로 남자만 4천명을 먹였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동의하기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00명 정도가 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25,000명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냈는데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4,5천명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1절에 “보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은 원어인 헬라어로 “horao”라고 하는데 그 뜻이 그냥 눈으로 본다는 뜻이 있지만 “마음으로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아무런 의미없이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니고 당시

까요? 성경에 보면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그 산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저도 산을 참 좋아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세상에서 나를 분리시키

않으시니” “았으시니”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산위의 한 넓은 바위 위에 앉으신 것 같습니다. “았으시니”라는 말은 원어인 헬라어로 “kathizo”인데 그 뜻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왕국을 수여하기 위해 앉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았으신”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앉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천국을 수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천국을 수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입을 여신 이유가 뒤에 보니까 가르쳐 주시게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

끼어 계십니다. 오늘 마음의 귀를 여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입을 여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한글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나오지만 원어성경에 보면 “복이 있나니”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원어인 헬라어로 “makarios”인데 그 뜻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복이라기보다는 “행복” 즉, Happy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위로 올라가셔서 한 넓은 바위에 앉아 당신의 입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makarios” “행복하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3절에서 10절까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가장 큰 바람과 관심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 그러할 텐데...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간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이 영생의 이쪽편인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입니다. 행복은 모든 인간들이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복”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천국의 설명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매여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팔복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행복하게 사는 삶 마태복음 5:1-2

의 마음에 그들을 모두 품고 바라보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을 감으셔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분 한분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라고 나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세상과 멀어지면서 하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것을 주시려고 산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하늘과 더 가까운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과 더 가까운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의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께서 친히 입을 여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상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친히 입을 여셨는데 안타깝게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얼굴의 양쪽에 달려있는 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

복이 나옵니다. “뉘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8가지 복 있는 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원어성경으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속에서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뉘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기보다는 “뉘뉘하는 자는 행복하나라”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팔복”은 사실상 “행복한 사람의 삶”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

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입니다. 행복은 모든 인간들이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복”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천국의 설명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매여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팔복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봅시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교육칼럼

Teaching Method 개발
문화에 의한 접근 방법 3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씨였지만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문제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제 하에 교사들의 활동과 역할이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 외에 그들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생활지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오늘의 심각한 청소년폭력문제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왜 학교에만 책임이 있겠으며 선생님들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부모들의 왜곡된 교육열 또는 무관심, 입시위주의 교육행정, 정치적, 사회적 무대책 등이 빚어낸 불행한 결과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진회’ ‘이진회’ 등 폭력서클을 만들고 집단 폭력행위를 해 온 아이들이 어디서 이런 일들을 배웠을까? 여러 통로를 통해 그들은 간접적인 경험을 먼저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어른들의 문화 속에서 어두운 면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영화나 연속극은 물론이고 실제하고 있는 사회폭력조직에 대한 사건 기사나 뉴스 등 매체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문화 속에 폭력과 살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도 교사도 우리 자녀들의 인성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도 자녀들의 학업성적에는 관심이 많지만 실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데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누구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맞벌이 대상은 언어를 배우고 교육할 수 있는 2살 아이로부터 초등학교 12세 아이까지를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중, 고등학생들은 버리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또 다른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교육의 효율성과 보편성을 실현해가기에는 가장 적합한 연령이 아직 사춘기나 반항기에 접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창세기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사람에게 문화명령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후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사람이 그 땅을 다스리고 지키는데 방해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문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람과 문화 사이의 중요한 관계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이 문화에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문화를 지배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E-World에 빠져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컴퓨터도 미디어도 인터넷도 게임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내가 필요한 부분에 선택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그것들을 지배하는 것이요, 다스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자료를 정리하는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여 자료를 만드는 데 그리고 간단한 음악이나 미디어 또는 문화매체들을 활동하는데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사업에나 여러 사역의 홍보 및 소통을 위한 매체들로 활동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E-World에 지배당하면 패배자...지배해야 문화명령 수행
해결책 ‘맞벌’ 은 어릴 때부터...무관심/방관하면 시기 놓쳐

인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문화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의 내면에는 공격성이 자리 잡게 되고 현실과 가상의 사이를 넘나들다 순간 본능적으로 그 잠재적인 공격성이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하루 24시간 중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Physical World가 아닌 E-World 즉 사이버 공간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끔찍한 사건들을 저질렀던 청소년들에게서도 밝혀졌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말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돌변하여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을 걸로만 보서는 안 됩니다. 책상에만 앉아 있다고 공부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직장에서도 책상 앞에서 순간적으로 사이버 세상과 현실 사이를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지 무슨 일을 하려고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문화적으로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을 그와 같은 문화로부터 격리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미디어나 인터넷이 없는 아프리카 정글 속으로 들어가 살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험한 문화로부터 격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맞벌을 놓는 것입니다. 동네와 집들을 순식간에 삼키는 거대한 산불을 끄려면 불이 타고 있는 곳에 직접 물을 뿌려서는 도무지 산불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 타오르는 방향을 앞서 먼저 맞벌을 놓아 그 불이 그곳에 다달았을 때, 그 거대한 불길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맞벌작전을 펼쳐야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맞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먼저 대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오늘날 위험한 문화에 이미 익숙해진 중고등학생들은 늦

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겠지만 시작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상을 이렇게 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에서 12세까지의 연령사이에도 여러 개의 단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지활동이나 인식기능이나 그들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환경설정과 문화적 콘텐츠 투입과 교육계획 및 Teaching Method 개발과 교육활동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환경설정과 문화적 콘텐츠 투입과 교육계획 및 Teaching Method 개발과 교육활동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 서로 함께 개발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글로서 설명함에 한계면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면이 허락하는 한 자녀들을 위한 문화적 교육환경 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문화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근거를

부여한 문화명령을 바르게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바른 지도와 훈련이 없이 학교나 세상으로 내 보내질 때, 친구들을 통해 잘못된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타락한 문화에 맡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연령의 우리 아이들로부터 교회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담당한 지도자들이나 교사와 부모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문화적 오염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관심과 방관하는 사이에 잠시 후 그들이 틈에 이저가 되면 더 이상 조절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구체적인 교육계획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호부터는 연령별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어겠습니다.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어느 목사님의 창세기 12장의 설교에 신구약 성경의 첫 이민자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아브라함은 신구약 성경의 첫 이민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특징은 창세기 12:4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가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자 그가 받은 축복은 복의 통로 즉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 계보에서 구원자인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인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받은 복을 받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복 즉 영권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이나 섬기는 저주받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15:6) 이것은 구원론적인 축복이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영적인 복입니다.

둘째로 물질적인 복 즉 물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었습니다. 땅은 한마디로 미국에서 Property(부동산)를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복을 말합니다. 아브라

영권, 인권, 물권, 보호권의 복을 받아야

함은 믿음의 부자가 되는 복뿐 아니라 물질의 부자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자녀교육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복은 받았는데 물질적인 면에서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텅 빈 그물에 물고기 들이 이동시켰습니니다. 그래서 두 배에 가득한 만선의 복을 주셨습니니다. 이 물질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셋째로 사람의 복 즉 인권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자녀를 주시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고 그 민족 중에 만유의 주가 되는 메시아를 그 족보에서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예와 같습니다. 바울도 이 인권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니다. 디모데, 디도, 누가, 바나바뿐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뱀비, 오네시모, 빌레몬 등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인권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좋은 평신도 일꾼들이 동역자로 붙게 됩니다. 교회도 인권의 복을 받아 좋은 일꾼들이 많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보호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실수를 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손해가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애굽 왕과 그 집에 큰 재물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의인을 보호해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EM 사역자(Part-Time) 청빙

슈리포트-보쇼 한인장로교회에서는 복음주의 신앙으로 Youth 그룹을 섬길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자격
- 1.5세, 2세 사역에 소명이 있으신 분
 - 한국어와 영어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
 - 정규신학대학원(M.Div.) 졸업 또는 2년 이상 마치신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 목회소견서

접수마감일 ○ 2012년 3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 Shreveport Bossi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 Elder Ho Suk Yu
 - 1180 Dudely LN Bossier City LA 71112
 - E-mail: rhs7869@hotmail.com / youngdook@msn.com
 - 전화: 교회 (318)742-3903, (318)751-2260
 - 당회서기 (318)349-2347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Shreveport Bossi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슈리포트 보쇼 한인장로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물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명 어:	_____	_____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물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여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은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u@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태국의 북동부 타이(NORTHEASTERN TAI)



북동부 타이족은 삼족(the Siamese)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태국 북동부 지방의 17개 주에 흩어져 거주한다. 이 지역은 태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평지이며 평지 사이에 몇몇 산들이 솟아있다. 이 지역은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들 중의 하나로 손꼽히며, 절경

을 이루는 대지, 절벽, 동굴, 강, 폭포, 삼림 등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 지역에는 고고학적으로 유명한 유적과 유물들이 있다. 수백년 전 타이족은 중국의 양쯔강(Yangtze) 주(州) 북부에 거주했는데, 중국인들의 혹독한 압력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됐다. 타이족은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대이동의 경로에 서 부딪히는 많은 종족과 문화들을 정복했고, 8-9세기경 마침내 대롱강 부근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10세기경에는 수많은 타이족 사람들이

삶의 모습

대부분 북동부 타이족 사람들은 농부이며 주로 관개와 계단식 논밭을 사용해 쌀, 카사바, 사탕수수를 재배한다. 다른 타이종족들과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키운다. 과일과 생선이 풍부하여 일상식(食)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건조한 기후와 땅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은 적은 편이다. 물이 부족해 일부 산업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북동부 타이족들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머드-미(mud-mee)" 실크를 생산하고 있다.

북동부 타이족은 작은 마을들로 조직돼 있고 각 마을 지역은 주로 계곡 하나를 중심으로 제한된다. 각 마을은 "차오 무웅(chao muong, 마을대표)"이나 군주의 통제권 아래 놓이게 되며, 주민들은 이들에게 세금을 낸다. 일반적으로 북동부 타이족 사회는 연령, 직업, 부, 주거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위계질서에서 농부들은 장인, 상인, 시 공무원보다 낮은 위치에 속한다. 성직자들은 별도의 계층을 형성한다. 주로 남편이 가정의 대표가 되지만 아내가 가족의 가계를 꾸리는 책임을 갖는다.

북동부 타이족은 친절과 솔직함으로 유명하다. 또 이들은 가족공동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경쟁적이지 않고 낙천적인 성격이다. 북동부 타이족은 빈번히 가뭄으로 고통 받기 때문에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북

동부 타이족들이 도시화된 산업인력으로 인정받으면서 많은 북동부 타이족들이 공장 노동자로 취직했다. 비록 북동부 타이족이 북부 타이족이나 중부 타이족보다 문화적 발달은 뒤쳐지지만 공교육과 북동부 지역의 발달된 교통시설로 인해 최근에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

많은 북동부 타이족 사람들이 전통적인 토속신앙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 이들은 불교의 가르침과 토속적 "정령숭배"를 혼합하여 믿으며 영혼과 사물들을 숭배함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삶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북동부 타이족 중에 약 십만 명이 시각장애인데, 비타민 결핍, 성병, 무분별한 약물 사용 등이 원인이다.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는데 이는 불교에서는 어린 아이의 실명도 "전생에서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믿기 때문이다. 북동부 타이족은 자신들의 영적 실명뿐만 아니라 신체적 필요로 치료해줄 크리스천 의료팀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신앙

북동부 타이족의 절반 이상이 테라바다(Theravada, 정통파) 불교도들이다. 이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고통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며 공적을 쌓는다. 궁극적으로는 열반(nirvana),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은 승려들을 먹고 절에 공양하고 불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공적을 쌓는 길이라 믿는다. 전통적으로 젊은 남자들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석 달씩 불교수도에 들어간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파갈등 극심 시리아 사태

시리아 정부의 민주화 시위대 탄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군사개입 여지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지를 인용, 13일 보도했다.



CSM는 지난 12일 군사작전은 중파 갈등이 극심한 시리아라는 '화약고'에 불을 댕길 가능성이 크며, 장기간 고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서방국이 개입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3일부터 반정부 시위의 거점도시 홈스에 집중 포격을 가해 100명 가까운 민간인이 희생되는 등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유엔은 지난 11개월간의 시리아 사태 와중에 정부군의 무력 진압으로 5천400여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했다며, 이에 아랍연맹(AL)이 지난 11일 카이로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병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리비아에서처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을 필두로 국제사회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시아과 중주국인 이란과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지지해온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은 기름에 불을 부치는 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랍 네트워커인 "시리아에서는 이미 종교 분파간 분쟁이 이어져 왔다"며 "서방의 직접적 군사개입은 이 지역을 극심한 불안정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는 인구의 12%에 불과한 시아파 소수 종파인 알라위트가 지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수니파 다수에 권력이 넘어갈만한 상황이 오면 알라위트파인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은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영국서 첫 성전환 남자 아들 출산

남자가 아이를 낳는 시대가 도래 했다. 텔레그래프 신문 인터넷 판은 13일, 영국에서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자가 임신해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성전환수술로 여성에서 남성이 된 30대의 출산 시연을 전하면서 이 남자는 성전환수술을 받을 때 자궁을 제거하지 않아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남자는 성전환수술의 효과를 없애주는 여성 호르몬을 복용한 후 임신에 성공했으며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들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전환 남성이 임신해 아이를 낳은 것은 2008년 미국의 토머스 비티와 작년 12월 이스라엘 유베이 토퍼의 사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영국에서는 성전환자의 임신과 출산이 윤리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생식윤리논평'의 조세핀 키타발은 "성전환자들의 출산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인트메리대학의 트레버 스테머스 의학윤리 국장은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행복하고 바람직한 유년기를 가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행위는 창조주의 질서를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스라엘 외교관 상대 연쇄 폭탄 공격

(연합뉴스)이스라엘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폭탄 공격이 13일 인도와 조지아(러시아령 그루지야)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 AFP통신 보도에 따르



면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자국 외교관 차량이 대사관 주변에서 폭탄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이갈 팔모르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조지아 트빌리시에서도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을 목표로 삼은 공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도 경찰과 목격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외교 차량이 뉴델리에서 폭발하기 직전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며 차량 옆에 자석 폭탄을 부착했고 몇 초 뒤 차량이 폭발했다. 이번 폭발로 외교관 부인과 이 차량 운전사, 주변 행인 2명 등 모두 4명이 다쳤다. 당시 외교관 부인은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가려던 중 변을 당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외무부는 부상자의 정확한 신원과 부상 정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는 이스라엘 외교 차량 밑에 부착된 수상한 물체를 대사관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지아 현지 경찰이 검은색의 플라스틱 물체를 제거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은 2008년 다마스쿠스 폭탄테러로 헤즈볼라의 최고 지휘관 이마드 무그니에가 암살당한 지 만 4년이 된 다음 날이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곧바로 이번 폭탄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두 건의 테러가 있었다"며 "그 뒤에는 이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사건 발생 후 세계 각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에 위협 경보를 내렸다.

앞서 지난날 11일 이란 테헤란에서는 테헤란대학 교수이자 핵 과학자인 모스타파 아흐마디 로산(32)이 자신의 차량 밑에 부착한 자석 폭탄이 터지면서 숨진 바 있다. 이란은 핵 과학자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의심하고 있다.

우간다, 동성애자 종신형 입법 추진

우간다가 3년 전에 입법하려다가 실패한 법률을 다시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로 적발된 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다른 사람의 동성애 사실을 알고 고도 고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14년의 중형을 선고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우간다 내의 다수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행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입법에 실패한 적이 있었다. 기독교계에서도 우간다의 문화와 기독교적 가치관을 수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량이 너무 높아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도 빚발쳤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3년 만에 다비드 바하티 의원의 발의로 다시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3년 전과 달라진 점은 동성애자의 행량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줄어든 정도이다. 바하티 의원은 이 법이 우간다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지키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수호하며, 어린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우간다에서 동성애는 범죄이다. 현재의 법으로도 14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 그 형량을 종신형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한편 Amnesty International 등 주요 국제인권기관도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성적인 선호 성향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므로 그것으로 인해 박해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새 법안이 누군가의 동성애 사실을 인지하면 24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성애자로 의심 받는 당사자들 뿐 아니라 목격자들의 인권까지 유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에는 기독교 국가들이 적지 않다. 물론 국민들의 신앙을 좀더 자세히 분석하면 명목상의 신자들이나 혼합주의적인 경향이 확실하지만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많다. 때문에 우간다 뿐 아니라 탄자니아, 잠비아, 케냐 등에서도 동성애자를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간다의 경우도 인구 통계상으로는 84%가 기독교인이다. 이 법안은 미국의 정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직접 이 법안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언급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우간다 의회가 이 법안의 부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간다 의회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 일정을 잡지 못했다.

10대 2명, 한국 국적취득 가족 만나러 탈북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억류돼 복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했다. 연합뉴스가 선양발로 13일 보도했다.

코미컬

코미컬 - 교회 성장, 본질이 목회이다

이 책은, 교회 성장의 핵심인 코미컬 즉, 코이노니아, 미션,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 단언해서 썼고 있다. **코이노니아(koinonia)**란 우리말로 '영교, 교제, 사귄'이며 **미션(mission)**이란 '선교, 선교' 등의 뜻이다. **멀티플리케이션(multiplication)**이란 '증식, 번식'인데, 모든 생물은 증식 능력이 있고 증식을 위해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나 생령 중만 한 교회 역시 생명이 있어 증식할 능력이 있고 증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명의 목회자와 한 명의 멘토가 여행하면서 각 여행지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분하고 대화하며 풀어나가는 방식이며, 영리 권을 자제하며 서술하고 있다.

코미컬 - 김 집사의 목양행전

김집사라는 평신도가 대국목장이라는 하나의 소그룹에 코미컬의 영리행이 펼쳐져 풀어나가는 것을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 김 집사, 목양행전 그림체로 보여주었다.

이강천 목사
서울신학대학 동 대학원 석사, 이화여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목교, 목회학을 역임하였고 서울신학대학에서 기독교대학원 석사로 재학하였다. 전남 담양교회, 영동중앙교회 등에서 목회를 하였으며, 기독교대학원생들을 통해 선교국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버니버클리원 목장으로 목회하며, 선교사 및 목회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버니버클리원은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감독과 자유사역, 그리고 교회권 신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기성지, 기성, 구세군, 여정 등을 통해 초월적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했다. 저서로는 그의 생애를 다룬 '기성지, 기성, 구세군, 여정' '영적의 종파기', '성령사역으로의 초대', '세계를 움직이는 영성', '영성예배' 그리고 '자살예방의 목회' 이 있다.

●한빛출판연구소 출판, 영리행전사 ●홈페이지 www.gunren.co.kr ●주소 서울 송파구 이태원 134-3 ●전화 (02)747-1004 ●물안출판사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73. 처음이 좋았다(6)-다섯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한가롭게 오가는 물고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하다.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은 우리 눈을 힘차게 끌어당긴다. 빠르게 수영하는 돌고래나 몸을 벌로 움직이는 것갈지도 않은데 쏠살같이 움직이는 물고기 떼를 보면 생동감이 넘쳐난다. 바다 밑바닥에서 소리 없이 살고 있는 불가사리는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 뒤로 쭉쭉 움직이는 새우나 옆 걸음의 명수들은 이들도 신기한 것 같았다. 잘 살펴보면 수족관에 가면 물에 사는 각종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정신이 팔려 나를 잊어버린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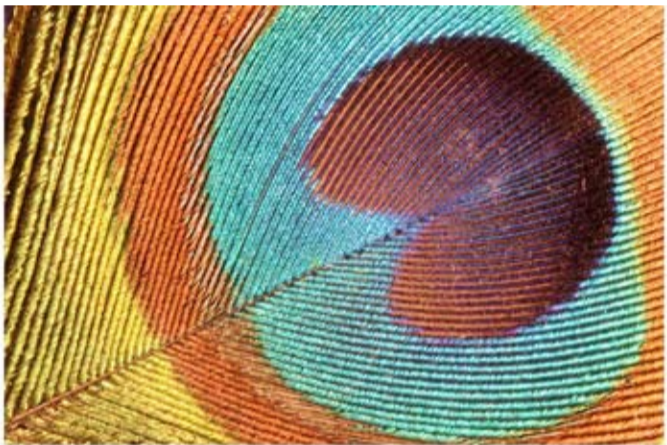
창 밖에 앉아 있는 참새나 연못에 수영하고 있는 펭귄 오리 등의 깃털을 유심히 보면 그 디자인에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깃털 한 개가 똑 같은 색이 아니라 위치마다 색이 다르게 채색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깃털과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어떤 패턴을 이루고 있다.

각 깃털은 새 몸통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길로 자라났는데 어떤 재주로 그렇게 완벽하게 통일된 모습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불수록 생각할수록 더욱 신기(神奇)하기만 하다. 창가에 앉아 있던 참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뿡' 하고 날아가 버린다. 생명과학을 전공한 나로서 수정란 한 개의 세포 속에 이런 가공할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대면하며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낳게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1:21). 이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 단지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그런 기묘하고도 형형색색의 크고 작은 물에 사는 생물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창조 주간 제 5일에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 로마서 1:19-23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하여지

노아홍수와 빙하시대 지나며 한 종류가 수 종/수십 종으로 나뉘어 환경악화로 멸종되기도... 적응가능 충분 양의 유전정보 이미 삽입



공작새의 꼬리 깃털

이런 디자인과 색깔을 만드는 놀라운 유전정보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

고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이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바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로 바꾸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현대에도 진화론으로 자기만 어리석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고 있다. 진화론은 지식이 적은 사람들보다 바보로 만들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 더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 버클리대학교 학생의 87%가 사람을 진화된 동물로 믿고 있다는 2005년의 조사 결과가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새가 공룡 같은 파충류에서 진화

나는 것 것과 기는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차이가 실로 엄청난 것이란 것을 직감하고 있다. 새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파충류의 비늘이나 피부가 깃털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깃털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공기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섬세한 디자인이 들어있다. 파충류의 뼈는 속이 딱 작아 있지만 새에서는 마치 골다공증 증세가 가장 심한 환자처럼 뼈 속이 비어 있어야 하고 그 강도는 훨씬 높아져야 한다. 파충류의 양방통행의 허파구조는 일방통행의 허파 구조로 바뀌어야 조류가 되는 데 어떻게 이런 진화과정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모두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유풀론적인 자연주의자들은 증거가 없는데도 진화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지적과도 같은 변화를 우연으로 주장하는 진화를 믿는 믿음의 뿌리는 창조자를 부인하는 믿음일 뿐이다.

창조 5일 째에 드디어 하나님은 생명체(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을 창조 하셨다. 창조 3일째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식물을 생명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식물들은 동물과 사람이 먹을 식품이 가장 큰 역할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으셨듯이 창세기 2장에 의하면 땅 위의 짐승들과 각종 새들도 흙으로 지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운용 방식이 비슷하다.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무엇보다 생명이 들어 있는 피가 돌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된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가서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 여기에 물고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물고기와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영어로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다)들도 흙으로 지으셨을 것이다. 육체가 운용되는 방식이 앞에서 언급한 동물들과 일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다스릴 바다 속에 사는 생물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지금은 노아홍수와 빙하시대를 지나면서 지역마다 크게 달라진 기후 때문에 한 종류에서 수 종-수십 종으로 나뉘어져 더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은 신음을 하고 있다.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와중에 어떤 동물들은 멸종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적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유전정보를 이미 그 생명체들 속에 넣어 두셨다. 우리들은 오늘도 그것들을 즐기며 누리고 있다.

창조 5일째 사람들을 위하여 물고기들과 새들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십자가를 넘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범죄하지 않았던 처음이 더 좋았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다음호에 계속)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뉴저지복음장로교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처음 이 말씀을 접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말씀에 매료되어 올인해 성경 말씀을 한 자도 빠짐없이 내 것으로 끌어안던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회심한 바울의 어찌하면 극단으로 보이는 고백들이(빌3:7-14) 너무나 멋지게 보였습니다. 어찌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의 모든 사신들을 통한 깊은 신앙의 진술한 고백들에게 깊이 매료되어 '나도 그의 길을 따라가리라' 바울이 바라본 같은 뜻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란 말씀이 도무지 소화불량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모든 것이 결국 내가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던가?" 질문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된다"는 역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죽어야한다면 그럼 내가 내 삶을 다 던지고 저 멀리 오지에 선교사라도 가야한다는 말씀인가? 그 생각에 미치지 갑자기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겁이 나고 "어머 내가 광산자가 돼가나?" 마구 혼동스러워졌습니다. "에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싫어하고 겁내는 외지에 나를 검정치마 흰저리 입혀 결혼도 시키시지 않고 홀로 외지로 보내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되어 겨우 두려움이 현실이 될까 은근히 겁이 질린 마음이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나 점차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부여주셔서 열심으로 손에 닿는 이들을 전도하며 나 자신을 구원해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도록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해 얼마나 수프랑스런 걱정을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려 했는지요. 말씀을 묵상해가며 점차 그분의 깊은 마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란 고백이 결코 내게서 중과 같이 완전 속세를 버리고 머리 깎은 종교인이 되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는 세상방식의 육적인 탐욕의 방법을 버려야 자칫 없는 죄인들 위해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주신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기에 유익인 나는 필히 죽고 순수한 예수님의 심장이 나를 주장해야 함이 점차 이해가 되었습니다.

외지에 나가 선교사 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실제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보낸다고 도저히 감당치 못할 무능력자가 오히려 보낼까봐 두려워하다니... 딱딱 사람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맛이 없네 이내 떠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드러나는 내 안에 숨어있는 육체의 힘의 잔재를 따라 사는 습관이 너무나 깊은 왜곡된 자기 사랑에 뿌리를 내려 쏠뿌리들과 엉겨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섬기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임을 봅니다.

진정으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며 작정합니다. "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우리 모두 안에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믿음 안에 따뜻하게 어우러져 무한히 사는 행복한 모습 너무 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복만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된 소식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갑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후 8:30 (월-토)</p> <p>Tel: (702) 379-7979, Fax: (702) 379-8191 6534 N.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8</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수요 찬양: 오후 11:00</p> <p>Tel: (704) 841-6291, Fax: (704) 841-1698 4215 Peachtree Ave., Suite 100, Atlanta, GA 30327</p>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7:00</p> <p>Tel: (303) 437-8800, Fax: (303) 437-8943 7785 Ripley St. Arvada, CO 80009</p>	<p>풍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p> <p>Tel: (910) 229-8291, Fax: (910) 229-7777 3290 Morris Rd., Levittown, PA 15148</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동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수요 예배: 오후 7:30(한국) 수요 찬양: 오후 8:00</p> <p>Tel: (704) 845-8179, Fax: (704) 845-8086 1600 Rockstone Rd., Levittown, PA 15147</p>	<p>맨 앨 교회 담임목사: 김용태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새벽 찬양: 오후 8:30(월-토)</p> <p>Tel: (410) 487-9794, Fax: (410) 487-8893 3766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병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찬양: 오후 8: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30(월-토)</p> <p>Tel: (617) 552-6497, Fax: (617) 552-6497 750 Main St., Hingham, MA 01948</p>	
<p>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2:30</p> <p>Tel: (410) 327-8444, Fax: (410) 327-8444 1005 Reservoir, Baltimore, MD 21202</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한국)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 오후 7:30</p> <p>Tel: (204) 458-0191 5007 Pacific Ave., Suite 100, St. John's, NL A1B 2X8</p>	<p>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206) 527-0381, Fax: (206) 524-1749 4640 N.E. 50th St., Seattle, WA 98125 www.kyongchil.org</p>	<p>입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후 4: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새벽 찬양: 오후 8:00 (월-토)</p> <p>Tel: (301) 820-8849 / 시애틀: (206) 425-3179 850 Roper Rd., Gaithersburg, MD 20878 www.kjms.com</p>	<p>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계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새벽 찬양: 오후 8:00</p> <p>Tel: (207) 544-6446, Fax: (207) 544-3152 2320 Green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스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대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후 7:30</p> <p>Tel: (214) 915-7579-1496, 시애틀: (206) 425-3179 3416 Wilbur St., Houston, TX 7706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3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 오후 8: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p> <p>Tel: (714) 543-0296, Fax: (714) 543-9637 750 Wilbur St., Houston, TX 77064</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2: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p> <p>Tel: (254) 834-6766, (254) 834-6837 458 E. 8th St., Dallas, TX 75247</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성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새벽 찬양: 오후 8:30(월-토)</p> <p>Tel: (702) 341-4427, Fax: (702) 341-4448 4213 Metcalf St., Alexandria, VA 22307</p>	<p>주 예수 교회 담임목사: 배현정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새벽 찬양: 오후 8:00</p> <p>Tel: (916) 496-0911 www.kjpc.org 329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새벽 찬양: 오후 8:00</p> <p>Tel: (410) 203-0318, Fax: (410) 203-0312 329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253) 385-1949 748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 오후 8:00(한국) 주일 3부 예배: 오후 2:00(한국)</p> <p>Tel: (253) 385-2807, (253) 385-6424 www.newbornch.org 8702 E. 8th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7:00 수요 찬양: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후 7:00 새벽 찬양: 오후 8:00(월-토)</p> <p>Tel: (253) 539-8975, Fax: (253) 539-6575 8234 E. Yukon Ave., Tacoma, WA 98444</p>	
<p>템파라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한국) 주일 3부 예배: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480) 725-9191, Fax: (480) 567-3997 1150 S. Debon Rd., Chandler, AZ 85286</p>	<p>아트포드재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현만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960) 842-4738, Fax: (960) 842-6696 306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h2 style="margin: 0;">하와이 지역</h2>		<p>아가페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새벽 찬양: 오후 8:00 (월-토)</p> <p>Tel: (808) 726-9011 1835-A Pepee Ave., Honolulu, HI 96816</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808) 739-7004, Cell: (808) 215-4982 3027 8th Ave., Honolulu, HI 96816</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808) 277-2386/967-1778/642-2522 1367 E. Banelan St., Hilo, HI 96744</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수요 찬양: 오후 7:00 수요 찬양: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p> <p>Tel: (808) 947-4252, Fax: (808) 947-4167 www.honolulu.org 2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지난해 통과 SB48 뒤집을 수 있는 기회!

PRE 및 Class Act 등 동성애 교육반대 서명운동 전개

지난해 통과된 'SB48'(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동성애 의무교육을 골자한 한 법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발의안을 위해 65만 명의 서명운동이 실시된다.



지난해 통과된 개악법 SB48을 뒤집을 수 있는 동성애교육 반대법안인 PRE 및 Class Act에 대하여 남가주교협 변영의 회장(가운데) 박성규 부회장(우측) 양경선 사무국장(좌측)이 설명한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날치기 통과된 SB48법안 저지운동을 펼쳤으나 저지 가능한 50만5천명에 불과 7천명이 부족해 SB48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 봐야 했던 교계에서는 이 개악법을 뒤집을 수 있는 Parental Right in Education(이하 PRE)과 Class Act 등 두 개의 안전장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캘리포니아 주를 살리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며 비록 구두교육이 가능하지만 예산부족으로 동성애교육이 삽입된 교과서 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설명했다.

7일 오후 남가주교협(회장 변영의 목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협 관계자들은 PRE와 Class Act 발의안을 위해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변영의 회장은 "지난해 SB48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시 기회를 주셨다"며 "PRE는 자녀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기 원하지 않으면 교실에서 빼낼 수 있다는 '부모권리보호' 법안"이며 Class Act 법안은 새 교육과정에서 동성애 교육에 관한 것을 삭제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변 목사는 "오는 27일 에 흑인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서명에 동참하기를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SB48 저지운동에 헌신했



유니온교회 찬양대원들이 '죄짐맡은 우리구주'를 찬양하고 있다.

"뜨겁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자"

제6회 웨슬리언 연합찬양축제 7개 교회 참여

미주웨슬리언연합회(회장 박재호 목사)가 지난 12일 오후 6시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제 6회 웨슬리언연합찬양축제를 개최했다.

이정근 목사는 '뜨겁게 사랑하라'(벤전4:8)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크리스천이 되고 찬양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찬양은 시온연합감리교회(담임 구진모 목사), 나성동산교회(담

임 한기형 목사), 연합선교교회(담임 이상복 목사), 유니온교회(담임 문병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담임 김세환 목사), 한빛성결교회(담임 차광일 목사), 드림교회(담임 이성현 목사) 등이 참여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며 셋빛선교합창단, 미주여성교단이 찬조 출연하는 등 행사의 기쁨을 더해 주었다.

한편 찬양순서 사이에 한기형 목사가 기감미주연회를 소개했으며 노정혜 목사가 나사렛교회를, 박승로 목사가 미주성결교회를, 이성현 목사가 연합감리교회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찬양제의 마지막은 구진모 목사의 지휘에 따라 목회자 부부와 회중들이 함께 찬송을 불렀으며 자현회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APU한인동문회 총회에서 이임회장 류창식 목사와 취임회장 최장식 목사가 악수하고 있다.

아주사퍼시픽 한인동문회장에 최장식 목사

총회, 수석부회장에 광경동 목사 선출,명칭변경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APU, 회장 류창식 목사)는 2012년도 정기총회를 13일 오전 11시 본교 LA캠퍼스에서 열고 2년 임기의

신임회장에 최장식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를, 수석부회장에 광경동 목사(새살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신임회장 최장식 목사는 "전임회

장들이 잘 이끌어온 APU 한인동문회를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무엇보다 500여 한인동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동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동문회를 APU의 일반학과를 전공한 동문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APU 한인동문회의 공식 명칭을 '아주사신학교 한인동문회(Azusa Pacific University Korean Chapter)'에서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Azusa Pacific University LA Chapter)'로 변경했다.

한편 이날 총회 전에 열린 예배에서 박성민 부총장이 '오직예수'(막 9: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던 박성규 목사(교협 부회장, 주립세운교회 담임)는 "이 땅을 도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회다. 지난번에 미온적인 협조를 보였던 가톨릭과 불교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 목사는 "서명을 많이 받기 위해 모든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지난번엔 한 달의 시간밖에 없었지만 이번엔 석 달의 시간이 주어졌다. 아시안, 흑인, 라틴계 등 타민족의 서명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은 지난해 실시했던 SB48법안 저지서명운동과 동일한 시민권자 유권자에 한해 서명이 가능하며 서명용지에 동일한 카운티의 시민권 유권자들이 서명한 서명용지만이 유효하다.

SB48저지를 위해서는 50만4,760명의 서명이 필요하나 서명용지의 오류로 무효가 되는 것을 감안 65만명에서 7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하게 된다.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필요한 서명을 받으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돌입하게 되며 주민투표로 인해 PRE와 Class Act의 통과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한편 남가주교협에서는 PRE(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보호) 발의안 서명운동관련 목회자 및 리더 세미나를 2월 16일(목)부터 20일(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과 캘리포니아의 총체적(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기독교)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SB48의 이후, 2012 대선, 미국의 새로운 발의안들, 미국을 흔드는 비기독교적 법안들, 자녀교육 방향 등등)'를 다루게 되며 강사로 는 SB48저지운동에 최선전에서 활약했던 김태오 목사와 새라강 사모(TVNEXT)가 나선다.

자세한 문의는 tvnext.org@gmail.com, sarahspring2009@gmail.com이나 (323)735-2000/남가주교협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NSM 창설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거룩성 회복만이 개인/가정/나라 살린다

New Spirit Movement 출범감사예배 드려

Holy Life, Holy Family, Holy Nations 운동을 핵심으로 내세운 New Spirit Movement(NSM)가 정식 출범했다.

NSM 운동의 상임대표인 박용덕 목사가 시무하는 남가주비내리교회에서 드린 출범 감사예배는 많은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NSM 공동대표 윤덕근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는 Shine 찬양팀의 찬양과 메시아여성합창단(지휘: 노형건)의 성가가 있었으며 성성용 목사(NSM 공동대표)의 기도 에 이어 송정명 목사(미주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변전1:13-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박용덕 목사(NSM 대표)는 NSM 개요 설명 및 인사말을 전했다. 변영의 목사(남가주교협회장), 김영대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신종은 목사(오렌지카운티목사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윤성원 목사(오렌지카운티교협 이사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용덕 목사는 개요 설명에서 "심각한 영적 타락으로 인해 마치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쫓겨 모르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의 타락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New Spirit

Movement와 함께 거룩성 회복 운동의 비전을 주시고 이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거룩성 회복 운동만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유일한 길"임을 역설하며 이 일을 위해 거룩한 기도운동, 거룩한 생활운동, 거룩한 개혁운동, 거룩한 생산운동, 거룩한 나눔운동 등 5대 실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NSM에서는 포럼과 컨퍼런스, 수련회와 NSM School 등을 운영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이 운동을 통해 거룩성 회복뿐만 아니라 거룩한 인재 만들기에 나서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내놓았다.

NSM이 이끌어갈 조직은 다음과 같다. △상임대표: 박용덕 목사 △고문: 송정명 목사 등 15명 △자문위원: 민승기 목사 등 31명 △공동대표: 변영의 목사, 엄영민 목사, 김영대 목사, 신종은 목사, 진유철 목사, 성성용 목사, 김원락 목사, 엄규서 목사, 이정현 목사, 조현영 목사, 송규식 목사, 윤덕근 목사, 이호우 목사 △사무총장: 이윤수 목사 △총무: 지윤영 목사 △협동총무: 김은광 목사 등 8명 △서기: 이득환 목사 △부서기: 박한규 장로 △회계: 유성근 장로 △사무회계: 최광호 집사.

자세한 문의는 (714)401-9874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NSM)



비전케어가 주최하는 사랑의개안수술캠프에 대해 알렉스 장 이사장이 설명하고 있다.

비전케어, 무료 개안수술캠프 연다

3월말 안과차 검진...최종 30명 선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백내장 등 안과 관련 수술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수술 서비스가 실시된다. 의료 선교단체인 비전케어서비스 미주서부(이사장 알렉스 장)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의 목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가주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무료 개안수술'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사랑의 무료 개안수술 행사는 4월 말 세인트 빈센트 안과수술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한인 안과 의사 약 5명과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 무료수술 나한다. 특히 광견증 안과는 수술실 대역에 필요한 1만 달러를 쾌척했고 나성영 사랑의 무료 개안수술을 실시한다

를 후원한다.

이번 무료 개안수술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신자의 경우 출석교회 담임 목사와 남가주교협의 추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불신자의 경우 남가주교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신청서 제출 후 3월말 안과질환 1차 검진을 받게 되며, 1차 검진 후 주위 측이 의사 소견과 가정형편을 고려해 최종 3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알렉스 장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한인사회 봉사를 위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무보험자나 저소득층 한인 중 안과질환으로 고통 중인 분들이 많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무료 개안수술 희망자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교회협의회 사무국(981 S. Western Ave. #401, LA, CA 90006)에 우편이나 팩스(323-375-3111)로 보내면 된다. ▲문의: (213)281-2617 (박준호 기자)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새끼 새끼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usa@samcare.org, soochol@samcare.org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교/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육아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가여 명을 제공합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 L.A., CA 90010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일!"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 100달러).

Pay to Order : The Korean Christian Press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터너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유통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www.lifebook.co.kr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밝히는
미주크리스천신문 구독하기
기사배포와 문서전고 후원을 바랍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동부교계 기사판



KAPC 제 70회 뉴욕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강기봉 목사) 제 70회 뉴욕노회(노회장 이원호 목사) 정기노회가 3월 6일(화) 오전 10시 뉴저지개혁교회(담임 조문선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노회장소에서 전도사, 목사, 목사후보생, 장로 고시를 치르게 된다. 또한 목사회원이기는 노회 2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의: (973)470-8407

'눈오는 지도' 토론토 공연

운동주의 시를 노래하는 밴드 '눈오는 지도'(Snowing Map)가 운동주 67주기를 맞아 캐나다 토론토에서 추모공연을 갖는다. 일시는 2월 24일(금) 저녁 7시 The Metropolitan Lounge(Balmuto St., Toronto, ON M4Y 0A3) 6층으로 티켓은 예매 10달러, 입장시 15달러이다. BNS, Arirang Korea TV, 운동주문학사상선양회 NY/NJ지부, 아넬넷, 아름다운운동주가 함께 한다.

▲문의: (201)835-8692(미국), (416)618-4514(토론토)

'120성령의 사람들' 미주투어

'120성령의 사람들'(대표 황정식 목사)이 미주투어 중 29일(수) 오후 8시30분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스티브황 목사)에서 라이브 워십 콘서트를 갖는다. 단원 21명이 출연한다.

▲문의: (646)942-2078 이종길 백투워십 대표



KIMNET 지역교회 활성화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선교지향적인 지도력을 통한 교회성장' KIMNET 지역교회 활성화 세미나 열려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KIMNET)상임대표 최일식 목사가 주최하고 SEED선교회(국제대표 이은상 목사)가 주관한 2012년 지역교회 선교활성화 세미나가 지난 6일, 7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지향적인 사역이 요구되는 21세기 사역자들에게 새로운 목회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성경적 지도력을 통한 선교지향적인 목회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가 된 교회가 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선교지향적인 지도력을 통한 교회성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첫날 6일 오전에는 송상철 목사(새한장로교회)가 '사역에서의 갈등해결을 통한 부흥', 송병기 목사(뉴욕목양교회)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와의 동역'을 설명하는 주제 강연이 있었고, 이어 오후에는 이원상 목사(워싱턴중앙장로교회 원로)의 '교회가 선교합니다'의 강연이 이어졌다.

'교회가 선교합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이원상 목사는 "하나님은 선교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임을 말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이며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하신 이 선교적 사명, 곧 복음전파의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면서 "성령은 선교의 능력"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날인 7일 오전에는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의 '선교지향적인 리더십 1,2', 오후에는 유승관 목사(서울사망의교회 선교목사)의 '평신도 선교인력개발 및 활용', 이은무 선교사(KIMNET 사무총장)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와의 동역'의 강연이 이어졌다. 한편 KIMNET 10주년 컨퍼런스인 '역동적 선교를 위한 커넥션'이 오는 10월 15일(월)-21일(주)까지 같은 장소인 샬럿장로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선교 헌신자들이 이렇게 훈련하라!

PSP 215기, 뉴욕일원 목회자만 35명 등록

퍼스펙티브스 집중훈련(Perspectives Study Program, PSP) 215기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뉴욕총신교회(담임 김혜택 목사)에서 열렸다. 선교한국 파트너스가 주관하고 GP 등이 주최한 이번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세계 기독교 운동을 위한 퍼스펙티브스) 이번 훈련은 12주 과정을 목회자들을 위해 1주일로 압축해 집중훈련 했다.

강사는 김병선 목사(GP대표), 손창남 목사(OMF 전 대표), 김혜택 목사(GAP, GKYM 대표), 한철호 목사(선교한국 파트너스 대표), 신기환 목사(IMB), 유익상 목사(시드선교회 USA대표), 김요한 목사(시드선교회 USA부대표)가 맡았다.

첫날 저녁강의를 맡은 유익상 목사는 강아지(身學)와 고양이(自身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강아지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태도리 안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을 비교하며 고양이신학의 위험성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공평과 글



PSP 참석자들이 첫날 저녁 강의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로בל 영광을 향한 열정에 대해 강의 했다.

이번 뉴욕 PSP는 지난 12월 뉴욕 로체스터에서 열린 세계청년선교대회(GKYM)의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훈련 주 목적으로 개최됐다. 목회자들만 35명이 등록한 이번 강의를 첫날 오리엔테이션 후 성경 강의는 한철호 유익상 김병선 목사가 맡고, 역사는 한철호 김요한 목사, 문화는 손창남 목사, 전략은 신기환 김혜택 한철호 목사가 맡았으며 코디 훈련은 한철호 목사가 맡았다. 그 외에 소그룹 및 참가자 소개, 비디오 및 스킷 등이 진행됐다.

PSP는 세계기독교운동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등 4가지 관점을 다루며 교제도 4부로 나누어져 있다. 12회의 강기가 진행된다. 성경적인 관점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유원정 기자)

재산세 면제 미신청 한인교회 있다

CCCNY, 신청양식 문의 등 안내 이메일 보내와

뉴욕시교협(CCCNY) 지미림 사무총장이 뉴욕시 교회 재산세 면제 신청 마감일이 13일이었으나 약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빨리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0일 이메일을 통해 본사로 연락해온 지미림 사무총장은 "뉴욕시가 재산세 면제 신청 안내를 몇 차례에 걸쳐 교회들에 발송했으나 1월 26일자 세금면제 미신청 비영리단체 명단에 한인교회들이 아직 포함돼 있다"며 뉴욕 한인기독교인들에게 자료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미림 사무총장은 "13일까지 뉴욕시 세무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확인 및 평가 후 5월 비과세 단계로 등록된다"며 "미등록 교회는 과세 년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재산세 면제 신청 양식은 뉴욕시청 홈페이지(<http://www.nyc.gov/html/taxcomm/html/home/home.shtml>)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feinstein@cccny.org나 (212)669-8813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YP3 명품찬양 콘서트에서 찬양하고 있는 삼형제. 왼쪽부터 유현웅, 유태웅, 유진웅 형제.

3형제의 명품찬양...기독교문화공간 설립 추진

유진웅 유태웅 유현웅, 합창 합주 개인경연 등 다양

기독교 문화선교단체 라이프라인 미션(대표 유태웅 목사)이 한인들을 위한 기독교 문화공간 설립에 나섰다. 한인사회 문화공간이었던 코리아 빌리지 열린 공간이 폐쇄됐기 때문. 동 기관은 그 일환으로 지난 12월 저녁 3형제(Y.P.3, Yoo's Praise)가 콘서트를 가졌다.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유진웅 집사, 유태웅 목사, 유현웅 집사 3형제가 개최한 'YP3 명품찬양 콘서트'는 합창 공연, 합주 공연, 개인 경연 등 다양한 모습의 찬양을 선보였다. 특히 '나는 가수다'에서 따온 '나는 찬양 가수다' 코너에서는 3형제의 공연을 두고 청중평가단의 심사를 받기도 했다. 이 코너에서 유진웅 집사는 '성령이 오셨네'를 악기를 통해 열정적으로 연주했으며, 유현웅 집사는 '천년을 불러도'를 헌신의 힘을 다해 불렀다. 유태웅 목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연주 없이 목소리로 승부했

며 1등은 유진웅 집사가 차지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맨스 D.I.M.팀, 손사랑 수화 찬양팀, 에베에셀선교교회 유스그룹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라이프라인 미션(대표 유태웅 목사)은 한국에서 낙도선교와 군선교, 미자립교회 돕기 등의 사역을 펼쳐오다 지난 2004년부터 열린공간을 빌려 크리스천 문화사역의 일환으로 불우이웃돕기, 콘서트, YP3 자선 음악회를 비롯한 기독교 문화공연을 기획해왔다. 만형 유진웅 집사는 우드윈 음악원 원장, 뉴욕코리안팝TM오케스트라 단장 및 지휘자로, 둘째 유태웅 목사는 콘셀러, 기독교뮤지컬 기획 등 문화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셋째 유현웅 집사는 뉴저지CMA뮤직아카데미 대표, 뉴저지 참된교회 찬양사역자로 섬기고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리폼드신학교 봄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교수와 학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리폼드신학교 2012년 봄학기 개강예배

뉴욕리폼드신학교(학장 유상열 목사)가 2012년 봄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수업에 들어갔다. 첫 주는 특강으로 조국환 박사(초대학장)가 담당하며 이번학기에는 주간 조직신학(종말론), 선교학, 역사신학, 헬라어와 야간에는 조직신학(종말론), 역사신학, 성경신학, 상담신학 강좌가 오픈된다. 이외에 현장선교와 WCC에 대한 특강도 학기 중에 진행된다. 개강예배는 유상열 학장의 인도로 기도 유승태 목사, 말씀 조국환 박사, 헌금기도 최순이 전도사, 축도

최호의 총무처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국환 박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베후 1:5-7, 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생으로 택함 받은 직분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믿을 것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애, 사랑의 8가지"라며 "개혁주의 노선의 성경중심 신학교인 본교의 학우들은 먼저 성도가 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h3>				<h4>기쁨과 영광교회</h4> <p>담임목사: 권희수 교역자: 김태민 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11:00 지배교회: 오전 8:00(월-금) 오후 8:30(토)</p> <p>Tel: (718) 338-7828, 4180, 4181, (914) 770-8777 41-41 41st Ave., Flushing, NY 11355 E-mail: joyandglory.com</p>		<h4>낙원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45</p> <p>Tel: (718) 338-7728, 4180, (914) 770-8777 41-41 41st Ave., Flushing, NY 11355 E-mail: lagoonchurch.org</p>							
<h4>뉴욕갯마을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p> <p>Tel: (718) 226-2266, (718) 226-2267, Fax: (718) 226-4867 42-78 Flushing Ave., Flushing, NY 11355 www.gatmaul.com</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45</p> <p>Tel: (718) 261-9198, Fax: (718) 261-8433 42-28 42nd Ave., Queens, NY 11354 www.nykyang.com</p>		<h4>뉴욕빌라벨리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11:00</p> <p>Tel: (914) 262-1977, Fax: (914) 262-1981 2 Beacon St., West Nyack, NY 10994</p>		<h4>뉴욕새사임교회</h4> <p>담임목사: 이광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p> <p>Tel: (914) 262-1797, Fax: (914) 262-3411 42-04 42nd St., Flushing, NY 11355</p>		<h4>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11: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후 8:30(토-일)</p> <p>Tel: (718) 226-7828 / Call: (718) 226-8777 42-46 42nd St., Flushing, NY 11355 www.ayntok.com</p>		<h4>뉴욕 중부교회</h4> <p>담임목사: 김계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p> <p>Tel: (718) 226-7828, 4180, (914) 770-8777 42-46 42nd St., Flushing, NY 11355</p>		<h4>뉴욕초대교회</h4>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지배교회: 오전 8:00(토-일)</p> <p>Tel: (718) 338-3229, Fax: (718) 338-4376 42-46 42nd Ave., Queens, NY 11354 www.churchof.com</p>	
<h4>뉴욕호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라 14부예배: 오전 7:15 24부예배: 오전 8:30 34부예배: 오전 10:15 44부예배: 오전 12:00 54부예배: 오전 1:30 64부예배: 오전 3:00 74부예배: 오전 4:30 84부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후 8:00(토-일)</p> <p>Tel: (718) 793-8726, 8225, Fax: (718) 961-3711 42-15 42nd Ave., Flushing, NY 11355</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월] 8:00 [토-일] 8:00</p> <p>Tel: (201) 342-8104(콜), Fax: (201) 342-8104 309 Route 28,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p> <p>Tel: (718) 261-7171, Fax: (718) 261-3621 27-47 104 St., Flushing, NY 11355</p>		<h4>봉아일랜드성결교회</h4> <p>담임목사: 김계열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p> <p>www.gospelmission.org Tel: (718) 226-7797, Fax: (718) 226-4284 125 Edison Ave., Newburgh, NY 11969</p>		<h4>헤다니교회</h4> <p>담임목사: 장종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11: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30(토-일)</p> <p>Tel: (302) 428-3800, 4180, (914) 262-8777(미국) 420 42nd St., Flushing, NY 11355</p>		<h4>어린양교회</h4> <p>담임목사: 김수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p> <p>Tel: (718) 226-8208, Fax: (718) 226-8433 62-18 47th Ave., Woodside, NY 11377</p>		<h4>유니온연합리교회</h4> <p>담임목사: 박대열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3부 예배: 오전 12:45 4부 예배: 오전 2:30 5부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8:00</p> <p>Tel: (718) 226-8444, 4180, (914) 262-8777 42-46 42nd Ave., Queens, NY 11354 E-mail: luyonchurch.org</p>	
<h4>주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광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p> <p>Tel: (718) 793-8804, bounweon@comcast.net 70 Flushing Ave., Flushing, NY 11355</p>		<h4>주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용익 주일 1부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8:00</p> <p>Tel: (718) 219-7981, 7980 168-12 73rd Street, Queens, NY 11355</p>		<h4>중부뉴저지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p> <p>Tel: (914) 262-9222(콜), Fax: (914) 227-8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h4>핀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장영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p> <p>Tel: (914) 262-4540, Fax: (914) 262-7789 543-17 Flushing Ave., Flushing, NY 11355 www.kings.com</p>		<h4>핀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이규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00(토-일)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토-일) 수요 예배: 오후 8:00(토-일) 새벽 기도회: 오후 8:00(토-일)</p> <p>Tel: 718-472-1180 88-06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ingsch.com</p>		<h4>한마음침례교회</h4> <p>담임목사: 박아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지배교회: 오전 8:00(토-일)</p> <p>Tel: (914) 277-1103, Call: (914) 226-8777 70 School St., Queens, NY 11354 E-mail: hamanimchurch.com</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합동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 666-0009 Fax: (323) 665-0048 N.Y.: Tel: (212) 665-0074 Fax: (212) 665-0074</p>	
<h4>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h4>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황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8:00</p> <p>Tel: (55) 11-485, Fax: 55(2)-6543 Rua Augusta 111, Centro A, Porto Alegre 91229-019</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8:00</p> <p>Tel: 011-55-11-2070-8223, 8277-3141 R. Lúcio Alves 11, Bixiga, CEP 01069-010</p>		<h4>브라질 새소망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8:00</p> <p>Tel: (55) 11-2622-8754, 8035-1165 R. São João 171A, Vila São João, FARRA-0-05426</p>		<h4>아르헨티나 재민교회</h4> <p>담임목사: 최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8:00</p> <p>Tel: (54) 1154-635-7788 Av. C. O'Connell 2253, CAP.FED., B.B.A.A.,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담임목사: 황익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8:00</p> <p>Tel: (56) 27-7626-7626, (56) 27-6369 Santiago Centro - 3 Calle 325 Chile</p>		<h4>파라과이안교본부교회</h4> <p>선교사: 임한권 목사 파라과이안 신학교 학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후 8:00 (1, 2, 3부 새벽 예배)</p> <p>Tel: (596) 271-374-8883 E-mail: hwan@paraguay.com Carvertono RD. 1001, Asuncion-PARAGUAY</p>	

LA한인타운선거구 단일화 요구 '헨즈 어크로스 코리아타운' 행사

변영익 남가주교협 회장 인도로 기도회도 열어

LA 선거구재조정위원회(CRC)의 선거구 조정 확정을 앞두고 1천여 명의 주민들이 나선 한인타운 단일 선거구를 요구하는 '헨즈 어크로스 코리아타운' 행사가 한인타운 중심가인 윌셔 블러버드 선상 웨스트와 세라노 길에서 벌어졌다. 12일 오후 2시 한인 등 100여명의 주민들이 행사현장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를 형성하며 CRC에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타운 주민들과 남가주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 목사)와 한인기독교교우회(KCCD 회장 김태홍) 등 한인단체와 라티노 장애인 비영리단체 UDLA 리틀블랑데시 주민 등 소수계 주민들이 함께했으며 CRC의 선거구 재조정안을 강력히 비판해왔던 켈리 페리 시의원도 동참했다. 또한 윌셔연합감리교회, 동성학교, 윌셔크리스천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등 교회들도 참여해 한인타운



LA한인타운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헨즈 어크로스 코리아타운' 행사가 열리고 있는 한인타운 윌셔가

선거구 단일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남가주교협 회장인 변영익 목사는 "한인커뮤니티가 선거구 조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오늘 행사로 인해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고 이일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타운 아트앤테크놀로지센터(K-ARC) 이창엽 회장은 "4개 지역으로 나눈 것을 한 선거구로 모아 야 한다. 한인타운이 발전했지만 우리의 권익을 위해 책임지는 시의

원이 필요하다. 20년 전 4,29폭동으로 아픔을 가졌는데 폭동 이후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단결된 목소리로 교육 문화 경제 등 커뮤니티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해 뛰어난 윌셔크리스천교회 연구사 목사사는 "한인타운 선거구가 나눠져 있어 한인타운 주민들을 대변할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한인타운선거구가 단일화 되면 우리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한인의 물론 타인내 거주하는 자들의 권익을 위한 일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말

했다. 이날 행사현장에는 어린자녀들과 함께 참석한 부모들과 청년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나성순복음교회 청년부 바주는 회장이 "담임목사님의 권유로 청년부회원들과 함께 왔다. 처음엔 왜 이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알게 됐다. 오늘 행사가 한인타운 선거구가 하나가 되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인타운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자 어린자녀들과 함께 행사현장을 찾은 나성순복음교회 안소영 사모는 "한인타운에 사는 한인들이 하나가 되고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선거구단일화 운동을 통해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 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일을 통해 한국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타운 내 거주하는 각 커뮤니티의 대표자들이 선거구 단일화를 이날 참가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외쳤으며 변영익 목사가 한인타운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진 후 해산했다.

한편 주최 측은 14일 오전 9시15분부터 LA시청에서 열리는 시의회에 다시 모여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요구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들이 한미 기독교관 건립을 위한 일일식당에 대한 기자회견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미기독교회관 건립 및 장학사업 추진

남가주한인목사회 4월 9, 10일 일일식당 오픈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는 목사회 사무실 마련 및 한미기독교회관 건립을 위한 후원행사를 펼친다. 목사회는 13일 오후 타운 내 북창동순두부 웨스턴 지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에 발표한 한미기독교회관 건립에 대한 첫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김영대 회장은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목사회 첫 사업으로 오는 4월 9일과 10일 일일식당을 오픈해 자금을 모으는 행사를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장소는 윌셔가와 윌턴가에 위치한 다호칼비와 남가주 각 지역에 있는 북창동순두부에서 동시에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티켓가격은 10달러이며 이번엔 모아진 기금은 기독교회관 건립자금과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김 회장은 "남가주에 흩어져 있는 1400여개 교회와 기독교 단체 및 여러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모 수석부회장은 "기독교회관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의 회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주 이민사회의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이민자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아온 만큼 기독교인들만이 아닌 전 교민들이 참여하는 회관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한인 한명 당 1불 헌금을 통해 한미기독교회관이 남가주 한인들이 하나가 돼 건립된 회관으로 자리매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사회는 기독교회관 건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추진위는 남가주 교계의 각 교단대표와 원로목회자 그리고 기독교 사업에 좋은 영향을 준 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된다. 또한 기독교회관 건립이 건립될 때까지 매월 모아지는 기금은 언론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린 목적이 이끄는 40일팀 2012년 겨울수양회에서 피세원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목적이 이끄는...' 2012년 겨울수양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지역사회에도 공개

남가주사랑의교회 '목적이 이끄는 40일 팀'(담당 피세원 목사, 강신욱 장로) 2012년 겨울수양회가 11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KDC Hyssop Theater에서 열렸다.

이날 수양회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동 교제 은혜체플에서 제9차 목적이 이끄는 40일 세미나 진행을 위해 모인 스태프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양회는 개회예배, 소그룹실습, 목적40일 사역방향 설명, 사역팀별 사역점검, 목적 50일 사역개발, 리더 사례발표, 소그룹 평가회, 특강,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됐다.

피세원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 아니다. 8주간의 코스를 통해 참가자들이 삶을 나누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랑의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된다. 강신욱 장로는 "8차례에 걸쳐 열린 '목적이 이끄는 40일' 프로그램이 사랑의교회만의 것으로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웃의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문호를 넓히게 됐다"고 말했다.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는 새 담임목사가 부임하면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 미자립교회 등 이웃의 어려운 교회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강사를 파송해 섬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8주간 동안 운영되며 1인당 30달러, 부부는 50달러다. 세미나 진행 중 어린이들을 따로 돌봐준다. ▲문의: (213)300-7131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탈북민 목회자 간증의 밤

탈북민 목회자와 함께 북한선교 후원 및 간증의 밤이 산호세 뉴비전교회(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305)에서 22일(수) 오후 7시15분에 열린다. 한국 내 탈북민 교회 목회자와 사모들이 북한의 인권과 지하교회 상황을 증언하기위해 17일부터 23일까지 미국지역을 돌며 특별집회를 통해 북한 실정을 알리게 된다. ▲문의: (409)719-0000

탈북자 간담회 및 위로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회장 송정명 목사)는 오는 2월 18일(토) 오후 6시 만리장성에서 "탈북자 간담회 및 위로회"를 개최한다.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문의: (714)401-9874(총무 박용덕 목사)



최경주 집사가 코너스톤교회에서 열린 '최경주이야기' 집회에서 간증하고 있다.

코너스톤교회 '최경주 이야기' 성향

도움 준분들 위해 재단 만들어 나눔운동 전개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는 프로골프선수 최경주 집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최경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12일 오후 6시 간증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최경주 집사가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를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었다.

최경주 집사는 "PGA에서의 성적은 통산 8승을 기록하고 있다. 이 8승은 놀라운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최 집사는 "전날 완도에서 태어나 완도에서 자랐다. 처음에는 역도선수로 활동했지만 신체조건상 역도선수로 부적합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골프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 계기가 돼 골프선수의 삶을 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완도에서 서울로 가

게 된 이야기, 한국 최고의 골프선수가 되는 과정과 월드컵 참가, 그리고 PGA입문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매 경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최 집사는 자신의 삶의 철학은 잠, 빈 잔, 계단,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즉 잠조차 같은 강한정신을 가져야 하며, 내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과 응어리진 것에 대한 비움, 그리고 항상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는 계단,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무엇이 돼야겠다는 비전 등이다.

그는 "현재 최경주재단을 통해 나눔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나눔운동은 골프선수로 성장하는데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준 분들에게 나 자신도 나눔을 통해 꿈과 비전을 꿈나무들에게 심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로골프선수로 언젠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세계로 떠나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안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월-토)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권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월-토)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나성일민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경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원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남가주리더미교회 담임목사: 김효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디아스포라선교회 Stross Chapman Minist Center 대표: 정영자 목사 "성경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본질로 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라이브라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심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방주선교회 담임목사: 박용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월-토)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월-토)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월-토) 수요일 예배: 오전 11:30(월-토) 새벽 기도회: 오전 7:30(월-토)	베델안인교회 담임목사: 손연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펜쿠버비블리안교회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재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새창조교회 담임목사: 정병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용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얼마안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오턴지온터지침장로교회 담임목사: 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오션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월-토)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월-토) 수요일 예배: 오전 11:30(월-토) 새벽 기도회: 오전 7:30(월-토)	은혜안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훈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박진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대교회 담임목사: 이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10)995-0909 N.Y.: Tel. (718)995-4600 Fax: (718)995-0074

한기총 새 대표회장에 홍재철 목사

비대위 총회금지 가처분 기각 속 총회순항

[미선라이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차 정기총회(속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4일 치러진 제18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홍재철(69·부천 경서교회) 목사가 당선됐다. 홍 목사는 이날 낮 서울 서원동 왕성교회에서 열린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제23차 정기총회(속회)에서 참석 대의원 235명 가운데 231명의 지지를 얻어 새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대표회장 선거에 앞서 열린 속회에서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는 등의 정관개정안(지난해 10월 28일 실행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인준돼 홍 목사는 2년간 한기총 대표회장 직을 수행하게 됐다.

홍 목사는 예정합동총회 소속으

로 새북한교수수심기법국민운동본부 이사장과 한국기독교 통일문제 연구소 이사장등을 맡고 있으며 한기총 다빈치코드상영반대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 한기총 수쿠쿠(이슬람채권)법 대책위원장 등을 지냈다. 또 한기총 수쿠쿠법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이슬람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홍 목사는 당선 직후 "특정 교단이 아니라 한기총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출범 23년을 맞은 한기총의 역량을 모아 교단 간 소통과 사회 통합에 힘쓰고 국내외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 목사는 한기총 회관 건립과 주일(일요일) 국가시험 금지, 안티기

독교 방지 인터넷 선교사 10만명 양성,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및 한기총 위상 강화, 대사회적인 교회의 책임완수 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홍 목사는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출마해 당선됐다. 홍 목사는 한기총 세계교회협의회(WCC)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3년 WCC 부산 유치 반대를 진두지휘하면서 투사 이미지를 각인시켜왔다.

한기총은 이날 선언문을 내고 한국교회의 교회회 회복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기총은 올해 여는 역사적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2014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교회의 영적 성숙과 세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외에 한

반도 평화·복음 통일, 올바른 가치관 중립, 갈등 해소, 소외 이웃돕기, 저출산 문제 해결, 재개발 지역 교회 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거에 앞서 치러진 정기총회(속회)에서는 정관개정안 외에도 23회기 총회 대의원과 실행위원 배정 및 회비 책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기총 66개 소속 교단 및 17개 단체가 부담할 올해 회비는 총 6억 2053만원이다. 이만신 한기총 명예회장은 폐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 "신임 홍 대표회장은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기총에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유중현 목사)가 지난 주 법원에 제출한 3건 중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날 오전 기각됐다. 법원은 김 대표회장의 총회 속회를 위한 임기 연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직무대행 선임의 가처분 결정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총선과 대선 정책 제안

'기독교공공정책대체육위원회' 구성해 정책 검증

[미선라이프] 한국교회가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과 대통령 후보에 기독교 가치관을 담은 정책을 제안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세계성서화운동본부, 국가조찬기도회,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기독교 정책 선정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 연합기구와 선

교단체의 목회자, 신학자 및 대학 교수들이 대거 참여한다. 준비위원장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지낸 이용규(성남 성결교회) 목사가 맡았다.

이들 단체는 다음 달 중 '기독교 공공정책 대체육위원회'를 구성, 관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선정된 기독교 정책을 각 정당과 후보에게 질의해 응답을 받는대로 그 결과를 지역 교회에 보낼 예정이다.

이들 단체가 밝힌 기독교 정책은

낙태 반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미성년자에 대한 포르노 규제와 유해업소 단속, 공공매체의 윤리 기준 강화 등이다.

선거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도 정리한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해선 안 된다. 출마자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는가, 성서의 가르침에 합당한 정책을 주장하고 이를 충실히 실천해 왔는지를 중요한 선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규 목사는 "2007년 대통령 후보에게 교회 건축시 부과되는 기반 시설 부담금 20%가 무리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후 폐지됐다"며 "앞으로는 한국교회가 총선과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에게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적극 소개해서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태 세계성서화운동본부 공동 총재는 "과거 여야 대선 후보들은 그동안 불교 관련 문화정책 공약을 발표했으나, 한국교회는 대선 후보에게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전달하지 않았고 각 당 후보들도 기독교 관련 공약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젠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후보와 당에게 표를 던지고 감시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성 60주년" 5월 대규모 기념대회

5월 22일 서울 잠실체육관, 미/일 하나님의성회지도자 초청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총회가 교단설립 6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대회를 오는 5월 개최한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60주년기념행사준비위원회는 12일 "교단설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5월22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대규모 기념 행사를 갖는다"면서 "이 자리엔 미국과 일본 하나님의성회 지도자들

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교단설립 60주년 기념체육대회와 세미나 각각 10월 15-16일과 17-18일 오산리교회 설기념공식기도원에서 개최하며 조영기 총재와 이영훈 총회장 등이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훈 총회장은 "우리 교단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키고 세계 오순절운

동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조영기 목사가 기념"이라며 "특히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를 유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정도로 적지 않은 역량을 갖추게 됐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겸손과 섬김의 선교를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교단설립 60주년 기념대회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교단이 지난 60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또 다른 60년을 향해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는 1953년 4월8일 서울 남부교회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출범했으며, 58년 창립된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함께 폭발적인 성령운동과 부흥운동을 펼쳐왔다.

교단은 조 목사가 주창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신앙에 따라 성령운동의 확산과 교회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 1766개의 교회가 소속돼 있다. 교단은 교단설립 60주년 기념대회 전날인 5월21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에 공개토론 요구

학생인권조례 폐기 행동 나선 30개 대학 기독교학생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앞. 200여명의 젊은 이가 시민에게 전단을 주며 서명을 받고 있었다. 길 한쪽엔 '곽노현 교육감 사퇴 촉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기 서명운동'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30개 대학 기독교 동아리와 학생들

은 지난달부터 연세대 등 각 캠퍼스에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그간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반대 운동 등을 펼쳐 온 '진국기독교대학생연합' 소속 단체다. 이들의 손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서울시교육청과 의회를 규탄하는 '11개 조 반박문'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11개 조항에 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곽 교육감이 만들어낸 무가치한 학생인권조례는 국민들에게 타당성과 설득력을 잃어버렸다"며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명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반박한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임신·출산·성적 지향 차별 금지, 두발 복장 자유, 집회 허용 등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인권협약, 민법,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해 그 오

류를 분석했다.

단체들은 이날 학생인권 조례 반박문을 시교육청 정문 등에 부착한 뒤 '곽노현 뇌물 비리'와 '곽 교육감 병역 비리' 규탄을 위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단체들은 또 곽 교육감에게 인권 조례 관련 공개토론을 20일 열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곽노현 사퇴' 서명 2만여 명의 명단을 감사원에 제출, '공익감사' 발의를 청원할 계획이다.

"전사법은 종교 편향 정책" 주장

예정합동·공공정책 포럼...연등회 등에 수백억 지원

"한국은 불교 국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통문화 유지와 활용을 위해 특정종교에만 수백억원을 쏟아 붓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종교 편향 행위다."

현 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한 한국교회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교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과 공공정책 포럼(대표 박명수 교수) 등을 중심으로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사법)'과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예고' '자연공원법 개정안' 등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준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국가정책이 특정종교의 포교에 도움을 주면서 종교간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공공정책 포럼 문화정책 전문위원인 백중구 서울기독대 교수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사법의 골자는 전통사찰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풀고 보존사업 뿐만 아니라 활용사업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엄려스러운 사실은 한국사회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기존 종교행정 관행을 무시하고 유독 불교만 선택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불교문화 유산을 지원할 때에는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성과 특정 종교의 포교라는 종교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계에선 자연공원법이 개정된 것이나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예정 합동 자연공원개정안대위원회 위원장 최부영 목사는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에서 사찰을 둘러보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사찰의 보수 및 유지에 국가 재정이 지원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법안의 많은 부

분이 종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예능 보유자나 단체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생계비나 발표공연비, 제작지원비, 전수교육비 등을 지급받고 국가 보호를 받게 된다"면서 "종교행사가 분명한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과 사찰에 대한 막대한 예산 지원은 국가 재정이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교회 입장에서 볼 때 종교편향 및 정교유착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교계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 관계자는 "전사법은 전국 2만여 개의 사찰 중 민족 전통문화 유산이라 평가받고 있는 938개 사찰에 해당 된다"면서 "정부 지원은 사찰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개발과 관련 돼 있으며, 민족의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고 보존한다는 국가 책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전사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며 의결이 되면 다음 주 경 대통령 공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등회와 관련해 중무실 다른 관계자는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도 종교적 측면이 아닌 국가무형문화재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담당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지정 예고 뒤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된다"면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문화재심의위원회 최종 승인 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관광진흥개발 기금으로 템플스테이 시설 개보수에 50억원, 템플스테이 특화프로그램 시설건립 40억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원 및 관리 35억원, 사찰 음식 대중화사업 25억원, 사업단 운영비에 6억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회가 먼저 복음으로 하나 돼야"

한복합, 화해·협력 위한 조찬기도회

[미선라이프]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병혁 목사)는 10일 서울 신문로 새문안교회에서 '한국교회의 화해와 협력'이란 주제로 월례조찬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목회자들은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돼야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한 마음으로 한국교회의 화해와 협력, 일치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했다.

최병국 백석대 교수는 "한국교회가 비윤리적 행동과 물신주의, 교권욕, 자신만이 절대선이라는 집념을 벗어나지 않은 한 분절 극복은 물론 갱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 "자정 선언이나 말의 율음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순교자의 자세를 보일 때 한국교회의 분절과 분열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인용 덕수교회 목사는 화합 실현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를 통합하고 하나의 연합기구로 교단장협의회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손 목사는 "이 안은 2007년까지 완성하기로 하고 로드맵 10단계 중 4단계까지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이 길로 가는 길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코탕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문의: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760 Tel. 201-348-0201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sbm.or.kr
SBMO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O의 3대 목표
1. 믿음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BIBLICAL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미주신학대, 대문교회, 미주성경대학, 미주신학교를 사랑하는 미주교인들! 미주신학대, 대문교회, 미주성경대학, 미주신학교에 다니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금과 장학금에 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미주신학대, 대문교회, 미주성경대학, 미주신학교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숙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인민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본 선교회, 신학교, 기도회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Yemom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한글: 영문: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명 한글: 영문: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행차계)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④번 항목사항에 0표시를 하세요.

탈진과 스트레스 (4)

- 선교사의 스트레스 증상

황희숙 박사

(글로벌멤버케어센터 대표)



문화충격의 실제 문제는 우리 스스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의식하지 못하게 다가오는 심리적 왜곡이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상을 변질시키고 육신을 황폐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화충격의 증상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데, 앞서 폴 히버트가 지적한 토마스 흄즈와 마수사의 측정표에서 스트레스 지수를 배우자가 죽은 경우를 최고 100점으로 환산한다면 제임스 스프래들리와 마크 필립스의 측정예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하나만으로도 신입 선교사의 생활에 스트레스 지수가 50점 이상 추가되므로 많은 첫 임기 선교사들이 400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1) 신체적 장애

선교사가 경험하는 심한 스트레스의 한 가지 공통된 결과는 신체적 질병이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피로, 만성두통, 허리통증, 소화불량, 위궤양, 고혈압 및 심장 질환, 등이 있다. 스트레스는 또한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쉽게 사고를 당하게 만든다고 폴 히버트는 말하고 있다.

뉴욕의 '선교사 조사 연구소'(Missionary Research Library)의 연구에 따르면, 선교사 중도 포기자들의 가장 큰 단독 원인이 '건강'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과도한 스트레스는 결국 육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정서적 장애: 우울증과 좌절감

선교사들이 가지게 되는 스트레스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보통 우울증과 좌절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위대한 선교사들도 선교지에서 오는 강한 스트레스들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전해진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리의 부인인 도로시 케리, 아프리카 선교탐험가 리빙스턴의 부인 매리 리빙스턴, 허드슨 테일러, A.B. 심슨, 그리고 아도니람 제드슨 등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전해진다.

선교사들은 불행하게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면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데, 이는 실패의 두려움 그 자체가

에너지를 다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실패하면 내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못한 자라고 결론짓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울증: 우울증 장애는 뇌에서 감정과 사고를 담당하는 변연계, 시상 및 전두엽에서 세로토닌, 노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의 활성 이상이 생겨 마음과 신체 전반에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외부의 스트레스인자나 내적 갈등, 즉 심리 사회적 요인이 첫 발병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울 증상이 발현되는 동안 수반된 뇌의 생물학적 상태의 변화는 신경전달물질과 신경세포내의 신호체계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서 외적인 스트레스 인자가 제거된 후에도 기분장애의 후속적 재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

우울장애는 질한 자체가 그대로 자녀에게 유전되지는 않으나 같은 상황에서 우울장애로 이환될 위험을 다소 높여준다. 우울장애를 가진 사람의 1차 친족에서 그 유병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의 증상

① 자주 우울한 기분에 빠지며 사소한 일에 눈물이 난다.

② 무엇을 보아도 좋은 줄 모르고 즐겨 하던 일에도 흥미를 잃고 의욕이 없다.

③ 하는 일이 없어도 피곤하고 쉽게 지친다.

④ 집중이 안 되어 책을 읽어도 줄거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글방 들은 얘기나 전화번호를 잊어버린다거나 부엌에 가서는 무얼 가지러 왔나 한참 생각하고 그냥 돌아오는 등의 건망증이 생긴다.

⑤ 입맛을 잃고 잘 먹지 못하여 체중이 줄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체중이 갑자기 늘기도 하고 밤에는 잠을 못자고 새벽에 깨어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낮에도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등 생활 리듬이 변한다.

⑥ 무가치함 및 죄책감: 자신감이 저하되고 위축되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꺼려지며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나로 인해 가족과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나 때문에 모든 일이 잘못된다는 식의 부적절한 자기 비하와 죄책감이 시달린다.

⑦ 무망감: 미래에 대해 암담한 느낌을 갖고 작은 사건에도 가장

부정적인 상황을 예견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⑧ 자살 충동 및 시도: 막연히 살고 싶지 않은 기분에서 자주 죽음을 떠올리기도 하며,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충동을 느끼기도 하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 중 다섯 개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이는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항우울제의 복용이 중요하다. 또한 우울증상에 대한 주변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고 휴식을 요하며 육신적, 감정적, 영적,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3) 영적 장애: 연약함을 위장한 가면

선교사들은 때때로 자신의 연약함을 위장하는 가면을 쓰기도 한다. 선교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하게 되고 이것은 위장된 가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위장된 가면으로 한동안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쓸모없는 자아상임을 알게 된다.

드와이트 칼슨은 "해결되지 못한 다른 갈등과 마찬가지로 가면을 쓰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두려움 이외에도 초조, 염려, 피곤, 번민, 비난 그리고 때때로 새빨간 거짓말, 기만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가면 벗기를 거절하면 내적 갈등과 피곤을 야기 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타인의 성장 모두를 가로막게 된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면 벗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면을 가까이 벗어야 한다. 폴 히버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더러운 발을 기꺼이 먼저 내놓을 때에만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필요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연약함을 위장한 가면은 영적 일수도 있다. 자신의 영적 침체를 스스로 인정하기 보다는 가면으로 위장하려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선교지 편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곳은 건기 절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미국과 한국은 "겨울답지 않은 겨울"을 보낸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여기는 고산지역이라 밤 날씨는 조금 쌀쌀한 초겨울 날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낮 시간은 덥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을 하지요. 비가 오지 않는 날씨이기도 "먼지와 전쟁"입니다. 차는 온통 먼지로 쌓여서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건기를 맞아 교회 건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지난 1월 23일 예배를 드린 후 시작한 산이스드로세페로교회는 오는 금요일(2월 17일)에 완공이 됩니다. 한 달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입니다. 열심을 다해 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헌물한 50년 된 소나무 7그루가 성전 건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중앙장로교회(이재호 목사님) 성도님께서 후원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몽케카구아교회 건축은 오는 3월 6일 오후 3시에 기공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됩니다. 건축설계를 맡은 시카고 Judson대학 건축학과 Jae Cha 교수님과 두 학생이 참석하게 됩니다. Judson대학은 버마 선교사 Judson 선교사님의 이름을 딴 기독교대학입니다.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건축 선교사로 헌신을 한다고 하네요. 이번 교회 건축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건축선교사로 헌신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LA안디옥교회 원로 김상규 목사님과 권경숙 사모님, 뉴욕선교교회(김명국 목사님)에서 헌금해주셨습니다. 아직 부족(10,000불)한 가운데 있지만 건축하는 가운데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거자씨학교
종강예배: 지난 해 10월 10일 시작한 첫 학기 수업이 1월 27일

온두라스

에 마치고 종강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68명이 등록하였지만 그중 33명을 선발하여 수업을 했는데, 27명이 수료했습니다. 성적 우수자 5명에게 장학금과 상품을 수여함으로 첫 학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학기는 3월에 시작하게 됩니다. 지적인 성장과 함께 영적인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골아이들로서는 모든 것이 첫 경험들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청소년을 위한 모임도 가졌으며, 영적지도자들이 와서 특강도 해주셨습니다.

수학여행: 지난 1월 30일 수도 테구시갈파를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처음 수도를 방문하였지요. 산골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하던지요. 대정환 버스를 타고 새벽 5시에 출발하여 거의 4시간 만에 수도에 도착하여 온두라스 국립대학교 각 단과대학들 방문,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대법원 방문을 마치고 푼톤틴 공원에 가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의 자리에 앉아서 고위관료로부터 국회의 기능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시골 아이들에게는 이번 여행을 통하여 인생에 큰 도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육안의 시야 뿐 아니라 영의 눈도 열려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삼길 수 있는 장래의 좋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소농장 사역과 장학금 사역
영소농장 사역: 작년에 5가정에 분양한 영소 가운데 이미 새끼를 낳아서 다른 가정에 분양한 가정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양질의 짚을 생산하는 좋은 종자의 짚을 소를 파데탈라 혹은 미국에서 가져 와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에 분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사역: 장학금을 수여하는 첫 해입니다. 시카고 두란노침례교회에서 두 명의 성경학교 학생(안드레스, 아구스틴)에게, 락빌장로교회에서 지정장학금으로 밀타에게, 그 외 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11명이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역 계획 및 준비
단기선교: 금년 온두라스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계시는 교회는 현지 사역 계획을 위하여 미리 연

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미의 경우 특히 여름에는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미국에서 방문하게 됩니다. 올해도 여러 팀들의 사역이 예상됩니다. 더 잘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여 피차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segjunjang@gmail.com).

4/14선교대회 참가: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 열리는 4/14선교대회에 현지 사역자들(Paz 목사, Blanca 사모, Yaira 선생)이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참가할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저지 않는 경비가 예상(2,500불)이 되는데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등록 및 몽케카구아 거자씨학교 개교 준비

아자꾸알과 학교: 학교등록(2월 13일-17일)과 함께 두번째 학기를 위하여

몽케카구아 거자씨학교 개교 준비: 교회 건축이 완공(5월 예상)과 함께 거자씨학교가 7월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선생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6월에 등록을 받을 예정인데 좋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회가 성장하여 마을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난 12월 16일 산페드로 솔라에서 경미한(?) 차 사고를 내었습니다. 다치지지는 않았습디다. 상대방 차량이 2011년 새 차라서 보험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험에 들어 있었지만 차량 수리비가 보험 커버리지보다 많게 나와서 저에게는 적지 않는 부담이었습니다. 두 장로님께서 힘을 다해서 구입해주신 차량이라 죄송해서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몇 분의 도움으로 사고가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스티브 린튼 박사는 "선교사의 삶이란 주인이 주는 짐을 싣고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 짐을 전달하는 나귀와 같다"고 말하면서 "선교사가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짐그릇일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짐그릇 속에 담겨진 보물이 너무 귀하기에 오늘도 그 보물을 싣고 나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군 선교사
이메일: segyunjang@gmail.com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망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흥기도, 찬양의 초대, 집회기도, 묵회기도, 헌금기도, 위락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 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 예배 설교를 위한 예배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전야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 수요일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일 예배(금요일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포인트 중점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치유 명상(Today's Prayer Hearing Q.)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일 제공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와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lian.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 부식(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회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kcdc.net
이메일 - kcdc@chollian.net

전화 - (02) 824-5004
팩스 - (02) 824-4231-4232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685

반 기독교적인 미국 법안 안내



아는 게 힘!(3)

세라킴 사모
(Christian Coalition 설립자)

오늘은 동성애뿐 아니라 성 전환자들을 둘러싼 급한 문제들과 해결책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메이시 백화점(Macy's) 사건

2011년 12월 초 어느 여성이 메이시에서 옷을 골라 드레스 룸으로 갔었다. 그리고 조금 후 바깥에서 쏘문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 여성 직원과 여장을 한 남자(한눈에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나 여자처럼 화장과 여자 옷을 입은) 사이에서 오고가는 대화 내용이였다.

Macy's 직원: 여기는 여자들과 여자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 미안하지만 저쪽 남성 Dress/Change room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장한 남자: 나는 오늘 여자이기에 여기서 옷을 바꿔 입어야겠어요.

결국, 여직원은 매니저를 불렀고, 매니저의 도움을 청했던 여직원은 오히려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됐다. 해고(Fired)!!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메이시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일하는 여직원들로부터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리포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해고 당할까봐 무서워서 Macy's에 직접 얘기는 못하고 기독교 법률로 돕는 단체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들이 한 달 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메이시에 편지를 보내며, 메이시 정책을 바꿀 때까지 메이시에서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편지들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TVNEXT.org에 가시면 1분도 안 걸려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II. AB 266(Assembly bill 266)사건-성전환자 학생 격려/보호법

이 법안은 Assembly member이며 Democratic인 톰 암미아노(Tom Ammiano, 1941년생)라는 사람에게 의하여 2011년 2월에 제안(submit)된 법안이다. 암미아노는 2009년도에는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공식화(legalize)하려고 법안을 냈다가 거부당했으며, 그는 또한 SB48을 내놓았던 Mark Leno와 함께 동성애 운동을 하며, SB48과 비슷한 법안을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거주자이며 동성애자를 위한 운동가(LGBT Activist)이기도 하다.

AB266 법안은 학교나 교사가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1)학교에서나 운동하는 것, 운동팀에 들어가는 것 2)학교시설(화장실, 탈의실, 여성/남성 리카룸) 사용하는 것 3)카운슬링 받는 것 등에서 "성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법안이다.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린다. 왜냐면, 여자아이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 아이들과 다른, 더 좋지 않은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문제가 된 것은 SB48과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법적인어인 성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자면 학생의 기록지에 적혀있는 성적체성과 상

관없이 운동프로그램, 운동팀, 운동대회 등등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남녀가 함께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떤 운동시합, 대회(예: 레슬링, 풋볼 같은 운동종목까지 포함)도 똑같은 운동법칙을 남녀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함께 몸을 부딪치는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시설(화장실, 탈의실)이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남자가 성전환과정에 있거나 또는 여장을 하여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스포츠를 하고 싶다면 그것을 "학교나, 부모, 선생님이 참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법안이었다.

다행히 이 법안을 반대하는 변호사들과 사람들을 통해 AB266을 막을 수 있었으며 수정한 법안을 2011년에 냈고, 다행히 수정안이 지난해 1월 7일에 통과됨으로 적어도 초, 중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요청아래,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동,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게 됐다.

그러나 SB48, AB266 법안 외에도 이미 성전환자 및 복장 바뀌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법안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SB48통과 후 부모님이 알아야 할 것들:

1. 2012년 1월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은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를 포함한 역사, 사회과학을 배우게 되며 그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좋은 것이라고 배우게 될.

2.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지금 교육과정을 계속 줄이고 있으며 교사들을 해고하는 중이어서 교과서가 바뀌는 것이 완성되기까지는 2014년에서 2015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

3. SB48법에 의하여 선생님들은 "동성애, 양성애, 복장도착, 성전환 수술, 동성결혼이 자연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배우고 학생 자신들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가르치므로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꼭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동성애 및 성전환자에 대한 얘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진실을 알려준다. 동성애/성전환 등의 내용을 다루는 좋은 자료들을 TVNEXT.org에 가면 찾아볼 수 있다.

4. 비록 SB48은 통과됐지만 CaliforniaDepartment of Education, section 4에 의하면 "역사와 사회과정 수업은 교육코드 51204.5에 포함된 사람들(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이 이런 업적을 가르쳐야하나,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방법은 해당 관할구에 일임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LGBT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키며, 어떤 학습 방법을 결정할 것인지는 각 지역에 있는 학교 지구(local school district)에 편지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본다. 그러나 SB48법률상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exempt) 나올 수는 없다.

5. 학교나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에 의하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의 말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빼앗기든지 억압을 받는 경우에는 경찰에 리포트할 수 있고 또한 TVNEXT에게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도와드립니다.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교회)

일 가나안 여인의 호소 (마15:21-27)

22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나아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며 소리칩니다. 이는 자신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가엽게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이 여인의 호소는 성도의 믿음생활의 의미하는 지를 잘 보여줍니다. 믿음생활이란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은혜를 바라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삶입니다. 세리가 감히 하늘을 향

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던 것처럼(눅18:13),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삶이 성도의 믿음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하는 이런 믿음생활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끌고가 인도해주시길 것입니다.

화 믿음이냐? 소원이냐? (마15:28-31)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인의 소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소원은 흉악하게 귀신들린 그녀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놓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반드시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녀는 딸을 위한 소원을 가질 수 없었을 것

입니다. 소원은 오직 믿음에서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코 진정한 소원을 가질 수 없으며, 소원이 없으니 당연히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만이 참된 소원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따라 살아감으로 마침내 참된 소망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 현실의 문제 (마15:32-39)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32절)"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영적인 문제가 아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곧 굶고사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

고 계셨으며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주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교회에서, 혹은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극히 냉정한 이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은 적용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핑계로 현실을 도외시하지 말고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현실의 문제에 대처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목 명백한 표적 (마16:1-4)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 나와서 이방 땅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요2: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삼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야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적은 바로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이

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진행되어온 인류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또한 인간의 역사는 인류 구속의 역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에 나타난 명백한 표적을 보고도 다른 표적을 구한다면 그것처럼 우매한 일도 없습니다. 역사(history)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믿고,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 구하라 (마16:5-12)

9,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떡의 문제로 인해 근심하며 의논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면하고서도 고작 강가에 두고 온 얼마되지 않는 떡 때문에 근심하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찮은 떡 때문에 고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모든 필요를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요16:24).

토 나의 고백 (마16:13-20)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13절)고 물으셨던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15절)고 재차 물으십니다. 즉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 자신의 생각과 신앙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에 따라서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신앙적 수준이 평가될 뿐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바른 신앙을 고

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 고백을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다면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고백이 나의 신앙고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라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2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2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2.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2)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 May 17(Fri) - 21(Mon), 2012.
- 2) Place: Sheraton Meadowlands Hotel & Conference Center, East Rutherford, NJ. 07073 (Tel: 201-826-6500)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st - Genesis 3:1-21
- (2) NT Exegesis Test - 2 Peter 3:9-13

(3) Thesis Topic - A Critical Review of VeriChip from the Reformed Perspective

(4) Sermon Text - OT : Joel 2:29-32 NT : Acts 2:1-12

* Choose one of the two tests above.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one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
-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etc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hankchoi@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file. (Example: HankChoi_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2.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0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2. (Package post-received before March 31, 2012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Certificate.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 of exam (May 17-21) through Rev. Choi (287)471-7777, hankchoi@g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tech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being late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Hank Choi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Email : hankchoi@gmail.com
3285 Monte Rd. Lansdale, PA. 19446 / Cell : 267-471-7777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ung Hyun Lee (310)749-0677 (lakep0316@yahoo.co.kr)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Hanse Choi (287)471-7777 (hankchoi@gmail.com)
- 3) Inquiries in English : Rev. James Kim (949)736-4906 (pastorjames@stbleepest.org)

총회장: 강기봉 목사

서기: 송성섭 목사

고시부 부장: 이정현 목사

고시부 서기: 최해근 목사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발행인 장영준 목사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The Lord!

주최: **미주크리스천 신문**

강사



김홍도 목사
• 금란교회
• 주강사



소강석 목사
• 새에덴교회
• 주강사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 주강사



양의영 목사
• SBM.대표



현성덕 목사
• 캐나다 대회장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조일래 목사
• 수정교회



송용gul 목사
• 신천교회
• 현지대회장



이영섭 목사
• 불티모어교회



이정현 목사
• 나성서부교회



김승욱 목사
• 할렐루야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조일구 목사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송규식 목사
• 차세대 연구소 소장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 와 같은 병을 쓰기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평신도
X명	
소계	
선금	CK#
전금	CK#

본인은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전금을 등록만기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 숙소 워커힐 호텔**

- **참석대상**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온라인등록** 웹사이트 www.chpress.net 를 방문하셔서 개인정보와 교회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등록금**
목사·선교사: 조기등록 150달러(18만원) (*선착순 마감)(2012년 2월29일 이후 등록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00달러(24만원) | 한국현지등록: 50불(6만원) (숙박제외)
- **연락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sunnykapcq@yahoo.co.kr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presssj@hanmail.net
한국 등록처: 박종인 장로 (금란교회 사무국장) TEL.(02)490-7000, FAX. (02)436-5770
- **항공권/관광 문의:**
- 뉴욕서울왕복 항공료: 905불+Tax(Senior 815불+Tax)-아시아나항공
- LA 서울 왕복 항공료: 876불+Tax(Senior 786불+Tax)-아시아나항공
- 한국 왕복 항공과 3박 5일 캄보디아 (양코르와트 관광 +항공), 모든 Tax포함 1,560불(뉴욕, LA 출발)
- 담당자: 유 여행사 (718)463-9500 / Mrs. 유Miss 진 / yootravel@hotmail.com

